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라기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

성경 속의 이스라엘을 발굴하다

이스라엘 라기스 발굴 마지막 날, 라기스의 언덕에 섰습니다. 라기스의 성벽 너머로는 포도밭과 밀밭이 보입니다. 이 여름 라기스에서 땅을 파고, 성벽을 찾아내고, 옛 신앙의 선조들이 사용했을 범한 토기들을 발굴해 가면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기원전 5세기)을 찾아냈고, 그 성벽 바로 약 2미터 아래에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라기스를 지키고 있었던 성벽(기원전 6세기)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6미터 두께의 진흙벽돌로 쌓여진 히스기야왕 때에 산헤립에 의해 파괴된 성벽(기원전 8세기)을 찾아냈고, 지금은 그 성벽 아래에 있는 아직 연대가 확정되지 않은 3미터 두께의 돌 성벽을 발굴하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정복시대의 성벽(기원전 13세기)이거나 르호보암 시대(기원전 10세기)의 성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시대에 속하든, 이 성벽은 아직 고고학계에서는 발굴된 적도, 보고된 적도 없는 성벽입니다.

힘들지요. 당연히 힘이 듭니다. 새벽 5시부

터 오후 1시까지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발굴을 한다지만, 뜨거운 바람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리 쬐는 태양의 따가움으로부터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 전공도 아닌 고고학 발굴이 즐거운 것은, 제가 파내고 찾아내는 것이 그저 오래된 땅의 오래된 돌덩이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곧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글자로만 읽던 느헤미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의 성벽과 그 때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토기들을 조심스럽게 쓸질해가며 찾아내다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조우하고,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을 수 있고, 앗수르의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던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어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제게 주는 그 마법과 같은 매력과 끌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기스에서는 유다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3년 전,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촌각을 다투며 성과 성이 주고 받던 토판에 쓰여진 편지들 열두개가 1930년대에 라기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공물을 보내는 내용도 함께 있는데, 이 편지들을 통해서 당시 라기스는 유다왕국 남서쪽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으면서 동시에 밀과 포도 재배의 최적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700여년이 지난 지금 아

직도 라기스의 벌판에서는 농부들이 밀과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라기스 언덕에 올라서서 그 밀밭과 포도밭을 보는 몽클함이란 어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과 감탄사가 바로 제 고백이고, 저의 깊은 날숨입니다.

이성적인 사고에 익숙하고, 논리적 인과 관계에만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신앙고백으로만 치부하고, 성경이 가지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신앙의 고백이며, 동시에 역사입니다. 이제부터 광림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역사의 바다에 뛰어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진설명

르호보암 시대에 라기스를 정비한 이야기가 대하 11:9에 있는데,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을 라기스에서 지금까지 찾지 못한 학자들은 발굴 보고서를 근거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된 역사와 르호보암에 대한 성서의 기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 이번의

발굴로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이 발굴됨으로 역대기에서 말하는 유다왕국의 역사가 실제로 증명되었다.

- 1 3천년만에 드러난 르호보암 시대의 라기스 성벽
- 2 여호사밧 시대에 건축되어 히스기야 시대 산헤립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 발굴된 르호보암 시대의 바닥과 그 바닥에 잇대어 건설된 르호보암 시대의 성벽
- 3 르호보암 시대의 바닥에서 발굴된 기원 전 10세기 토기

라기스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매월 초에 광림교회 성도들을 위한 성지순례 이야기가 연재됩니다. 스크랩하시면 좋은 성경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실로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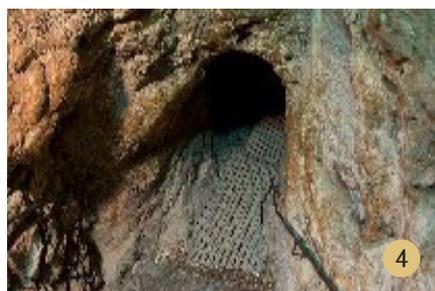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요 9:6-7)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무렵,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패망의 길을 유다도 똑같이 걷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앗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다를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심심치 않게 히스기야의 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힌놈 골짜기가 만들어진 천혜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은 성의 북쪽만 막아내면 되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루살렘 성에도 한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온 예루살렘 주민에게 공급되어야 할 물의 근원인 기혼샘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만약의 침공을 대비해서 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혼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혼샘에서부터 지하로 물길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남쪽에 대규모의 물저장고를 만드는 것이지요. (대하 34:2-4)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후, 히스기야는 기혼샘에서 흘러 보낸 물이 채워져 만들어진 이 물저장고를 '실로암'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내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하지만 늘 유다왕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던 시절에는 이 실로암을 정결욕조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백성들은 반드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예식을 해야 했는데, 정결예식은 정결욕조라고 불리는 물을 담아두는 공간에 옷을 벗고 들어가서는 온 몸을 물속에 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수 많은 사람이 늘 붐비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에는 수 만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의 주변에 많은 정결욕조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드는 사람을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대규모의 인파를 수용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정결욕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요 9:6-7)

우리말 성경에는 '못'이라고 되어있지만, 물저장고이지요.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실로암일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아마도, 정결욕조로 사용되고 있는 '실로암에서 눈과 몸을 씻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되면, 대한민국은 수능 시험 카운트 다운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수능생들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하겠지요?

그동안 새벽기도와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도 자녀들을 위한 열정적인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뿐인줄 아십니까? 자녀들의 학교가 발표되고, 합격통지서를 두 손에 받아들면 이 모든 결과는 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밤낮을 함께한 부모의 열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험 전에는 자녀들에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목사님들을 찾아와 안수기도를 받다가도 합격통지서를 받아들고서 교회를 찾아와서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노라고 말합니다.

또 청년의 때를 신앙 위에 보내졌노라고, 너무 감사하니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를 받으러 온 이들을 아직까지 저는 단 한 명

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은 그 길로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9:28), 오늘 우리는 그 길로 못 본 척,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난 원래부터 앞을 잘 보았던 사람인 양,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듯 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진설명

- 1 2007년에 발굴된 실로암 못(물저장고)
- 2 실로암과 성전 사이를 오가던 예수님 당시의 길
- 3 히스기야 터널로 흐르는 기혼샘물, 이 물이 실로암으로 모이고, 현재도 흐르고 있음.
- 4 히스기야 터널 입구
- 5 성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정결욕조

예루살렘 실로암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세 겹



“자, 이제 내 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수 24:15)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는 장난감 총이 쥐어져 있었고, 한 아이가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서서는 뭐라고 외쳐대니 다들 따라하는 모습이 흡사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앞두고 시위를 하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돌무더기 위에서 뛰어 내리기도 하고 언덕을 기어 올라가기도 하던 아이들이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간 듯하여, 아이들이 놀이터 삼아 뒹굴던 자리로 가서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으로는 그리심산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에발산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던 그곳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세 겹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 되어서 모스크에게 포위당하고 있지만, 약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곳에 장막을 쳤고, 3,200년 전에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이곳에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는 "아멘, 아멘"을 외쳤습니다 (신 27장). 다른 것이 있다면, 아이들의 손에는 장난감 총이, 여호수아의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장면이 서로 겹쳐 제 머리 속으로 들어오니, 웬지 모를 가슴속 아린 감정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겹에서 되짚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던 기억들을 다시 기억하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아지던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꾸셨던 역사를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감격스러움으로 그 심장이 마구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일갈 합니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의 신들을 섬겨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제 내 마음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수 24:15)”

일백십세의 노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을 요구할 때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제 갓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처럼 당당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

이다!”며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맹세를 잊지 말라며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증거가 되리라 고 선언했습니다.



그 돌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던 돌무더기,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 내리며 누가 더 멋지게 뛰어 내리나를 겨루듯 서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 하던 그 돌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세워놓은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제게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예수님만 따르겠노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안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에 안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보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그렇지 않은 양 그럴 듯 하고 번지르르한 말을 쏟아놓는 채 말입니다. 큰 숨 한번 들이마시고 그 돌을 한 손으로

짚고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쳐다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백성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 외침들이 귓가에서 우렁차게 울리는데, 저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설명

- 1 약 4,000년전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고, 3,200년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했던 세 겹
- 2 왼쪽의 그리심산과 오른쪽의 에발산으로 둘러싸인 세 겹 땅
-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맹세를 잊지 말라며 증거로 세워놓은 돌

세 겹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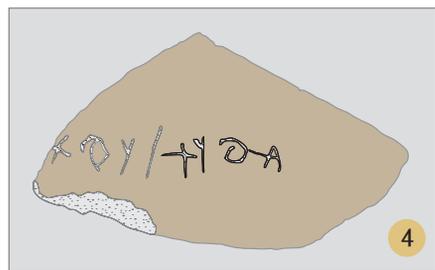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④ 카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내가 아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 56:9-11)

(Bar-Ilan University)에서 성경의 도시 가드(Tel es Safi)를 발굴하던 중에 토기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토기에는 ‘콜리앗’이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새겨진 때는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 중반으로 다윗의 시대(기원전 11-10세기) 즈음이었지요. 그 토기에 써 있는 이름, ‘콜리앗’이 성경에서 다윗이 죽인 바로 그 콜리앗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가드에 ‘콜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것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드에 살고 있었을 콜리앗의 가족에게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겠지요. (삼상 17:4) 그런데 어떻게 운명이 그렇게 알곡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쳐 간 곳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던 나라 블레셋이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가드는 다윗이 죽인 블레셋이 자랑하던 용사 중의 용사인 콜리앗의 고향이잖습니까? 하기사 사울의 나라 어디가 안전할까요? 다윗의 가드 행은 더이상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수 없었던 다윗의 비참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콜리앗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인척 연기를 했지요. 침을 흘리면서 문짝에 자기 몸을 그적거리던 다윗, 살아보겠노라고 도망친 곳에서 몸 하나 의탁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 버린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수치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무덤덤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여야한다고 흥분하며 고함지르던 가드 사람들의 비난과 고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다윗이 콜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이 부르던 노래! 지금 그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상 18:7; 21:11) 수염 밑으로 흐르는 침이 옷을 적시고 있지만, 또 미친 모습으로 이 거리지 거리를 술취한 듯 다니고 있지만, 다윗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다윗이 대단한 용사여서 콜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콜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장수라고 해서 늘 백전백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정적인 감수성과 냉철한 용맹함 모두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말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윗의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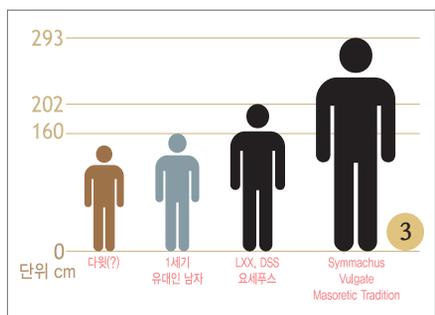
자신이 어떤 삶의 구석에 내몰렸던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과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인생의 가장 바닥에 처박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새라,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언덕 어디에선가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시편을 읊조리고 있었을 다윗을 생각하니 가슴이 마구 요동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내가 아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시 56:9-11)

사진설명

- 1 아세가에서 바라본 엘라골짜기 - 골짜기를 따라 좌측으로 아세가를 돌아쳐 나가면, 블레셋의 도시들로 가는 관문이다. 사진의 오른쪽에 굵아치는 넓은 골짜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장소였을 것이다.
- 2 블레셋 도시 가드(Gath)에서 동쪽 유대 산지 방향을 바라본 모습
- 3 콜리앗의 키에 대한 사본들의 차이. 콜리앗의 키는 대략 2미터가 조금 넘었을 것이라는 견해
- 4 텔 에스 사피 토기(Tel es Safi Ostrakon) 이 토기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콜리앗’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토기는 2005년도 Tel es Safi Area F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년대는 기원전 10세기에서 9세기 중반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Palestinian)이라고 하면, 종종 그들의 기원을 ‘블레셋 사람들’(Philistines)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발음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그 영문표기 방법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리스에 기원을 두고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인종, 말이나 체격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었지요. 다윗과 콜리앗의 싸움을 보면, 기본적으로 블레셋인들의 골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어렵잡아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 와서 살았던 대표적인 다섯개의 도시의 이름들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지만, 다윗이 물리친 콜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2005년도에 이스라엘의 바르일란대학교

가드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⑤ 베테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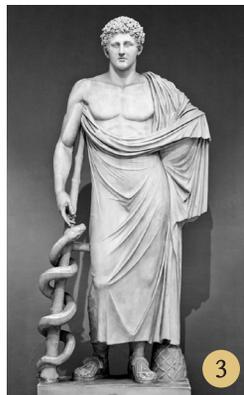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낮게 됨이러라(요 5:3-4)

“연못”이라고 하면 금붕어와 잉어떼들이 헤엄을 치고, 연잎이 뚝뚝 떠다니는 그림을 상상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베테스다(연못)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연)못이라고 번역하기는 했어도, 사실 베테스다는 ‘물 저장고’였습니다. 일부는 야외에 노출된 곳도 있었고, 또 건물 아래, 실내에 있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성 안에는 대규모의 물 저장고들이 꽤나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물 저장고라고 하면 성전 제의에서 사용되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성전 마당 아래에 만들어 놓은 물 저장고를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단일 시설을 위한 물 저장고로 큰 것이 아마 ‘베테스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테스다는 예수님 당시 병원으로 사용되던 장소였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에 사용될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했고, 그 규모 역시 단일 건물로써는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베테스다”라 하는 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히브리 말’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원어가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번역상의 혼동인 것 같습니다. ‘베테스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애로운 마음으로 육체의 질병 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비의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미취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베테스다는 로마의 신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스-로마 신화에 보면, ‘에스클리피우스’(Asclepius)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신은 약(藥)의 신이면서 동시에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흔히 보는 그림 중의 하나인, 뱀이 지팡이를 뱅뱅 돌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지팡이가 바로 에스클리피우스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에스클리피우스로 추정되는 신상의 일부를 베테스다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병자들이 바랐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그리스신화 속에 등장하는 ‘에스클리피우스의 자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테스다에서 38년 동안 고통을 간직한 채 낮고자 하는 열망으로 물 곁에 앉아 있었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딱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낮게 됨이러라]고 기록하였는데, 대괄호로 묶여 있는 이 이야기는 로마의 신화입니다. ‘천사’라는 표현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로 오해하지만, 그리스어로 ‘천사’라는 말 ‘앙겔로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나 신을 뜻하는 말로, 메시지를 전하는 신적인 존재나, 사람 누구라고 가리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우

스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는 에스클리피우스 역시 굳이 그리스어로 표현하자면 ‘앙겔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물을 움직이고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에스클리피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테스다의 중앙이나, 어느 한 쪽에 세워져 있었을 에스클리피우스의 석상을 바라보면, 그 돌덩어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를 38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그것도 바로 성전 옆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려갈 때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려갈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38년 된 그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베테스다 연못가에 앉아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낮고자하는 그 간절함은 아마 처음 발병해서 다리를 쓰지 못했을 때부터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지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을 이루고자 애달게 바라보는 그 석상, 그 신화! 바라보고 있는 곳이 엉뚱한데,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간절함이 그를 낮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낮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하는 것은 그 간곡한 간절함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성공 ‘신화’를 쫓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하거든요. 헛된 신화를 쫓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사진설명

- 1 베테스다 - 아람어로 "자비의 집" 현재 예루살렘 성안의 안나교회 옆에 발굴된 베테스다 못에서 사진에 보이는 깊은곳은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물 저장고로 가로 세로 50m*60m의 크기이다. 예수님께서 이 주변 어디에선가 그 병자를 만나셨을 것이다
- 2 베테스다 못의 예수님시대 건물 유적으로 멀리 좌측 상부에 ①번 사진의 물 저장고가 보임
- 3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 "에스클리피우스" (Asclepius)
- 4 38년동안 고통을 간직한 한남자와 베테스다에서 대화하는 예수님(상상화)

예루살렘 베테스다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⑥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리는 세레 요한, 더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3-16)

지난해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의 아기들 소식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가 그렇듯 우리 교회도 소박하고 작은지라, 태어난 2명의 아기 울음소리와 또 두어달 있으면 태어날 태중의 아기는 모든 교인들의 화제거리입니다. 예배와 식사를 마치고 나면,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아기들을 안아 보려고 줄을 서야 합니다.

덕분에 첫 아기를 낳은 초보엄마들은 교회 오는 날이 쉬는 날입니다. 머지않아 이 아이들을 위한 돌잔치를 교회에서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보니, 돌잔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기들의 돌잡이인데요. 예전에는 돌잔치에 오래 살라고 실을 올려놓고, 돈을 많이 벌라고 엽전도 올려 놓고, 학자가 되라고 책도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가수가 되라고 마이크를 올려놓거나, 운동선수가 되라고 축구공이나 야구공을 올려 놓는 부모들도 있고...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이 되어서 생각지 못한 것들이 돌잡이 상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무엇을 잡을지 연습시켜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헤롯의 영토가 넷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아들인 빌립이 받습니다. 나뉘어진(分) 아버지의 영토 중의 하나를 다스리며 로마황제를 섬기는(奉) 왕(王) 을 우리말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번역하는데,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왕 빌립은 자기를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황제 가이사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당시 ‘파니아스’라고 불리던 지역에 로마식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이사)에게 자신(빌립)이 현명한 도시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이사라 빌립보는 빌립의 영토의 행정 중심지이며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분배 받은 지역은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 농사와 목축에 적합한 땅입니다. 현재 골란고원으로 잘 알려진 이 지역을 외반 사람이라면, 므낫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살고 싶노라고 말했던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원 전 3세기 이후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찰할 신으로 하나님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을 선택했습니다. 판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신입니다.



동물들이 뛰어 노는 푸른 초원의 신이면서 동시에 목동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이 가지고 다니는 피리(Pan's Flute, 우리말로로는 판플룻)로 사람과 동물들을 유혹하여서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 쾌락을 즐기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판’을 동경했다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판’을 위한 신전을 짓고, ‘판’을 위한 도시라는 뜻으로 ‘파니아스’라고 불렀을 까요! 빌립은 이 ‘파니아스’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개명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 아래를 ‘판’을 위한 동굴로 명명하고는 그 앞에 거대한 판의 석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과 ‘제우스’를 위한 신전, 그리고 ‘네메시우스’를 위한 신전을 나란히 건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까.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로마식 도시와 주변을 감싸는 아름다운 풍경이 즐비하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웅대한 기암절벽과 탄성을 지를만한 화려한 건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개 인간인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과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석상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삼으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판을 숭배하며 풍요와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거리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기억하며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겐 철저한 응징을 하리라 다짐하는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에게 인색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우스를 신이라 부르며 “나도 이 화려하고도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의 시민이다!”라고 허영에 사로 잡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남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들이 저 돌덩어리들을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숭배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보면 돌잡이 상에 올려진 물건들은 아이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갈망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차려놓은 잔치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2016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 소망을 보시면서 똑같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 그 기대와 소망은 잘 들었는데, 그럼 네 인생에서 나는 도대체 뭐냐?”

사진설명

- 1 가이사라 빌립보의 기암절벽 - 이 절벽에 있는 큰 동굴이 판을 위한 곳으로 명명되었고, 그 앞에 판을 기뻐하는 대형 석상을 세웠다.
- 2 가이사라 빌립보 -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몬산의 이슬과 눈, 비가 산에 스며들다가 터져나오는 샘이다.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 가이사라 빌립보와 갈릴리를 오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을 떠 마셨을 것이다.
- 3 판(Pan)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반인반수(半人半獸) 모습의 신. (오른손엔 판신의 상징인 플루트 악기)

가이사라 빌립보 성지 위치도 (예수님 시대의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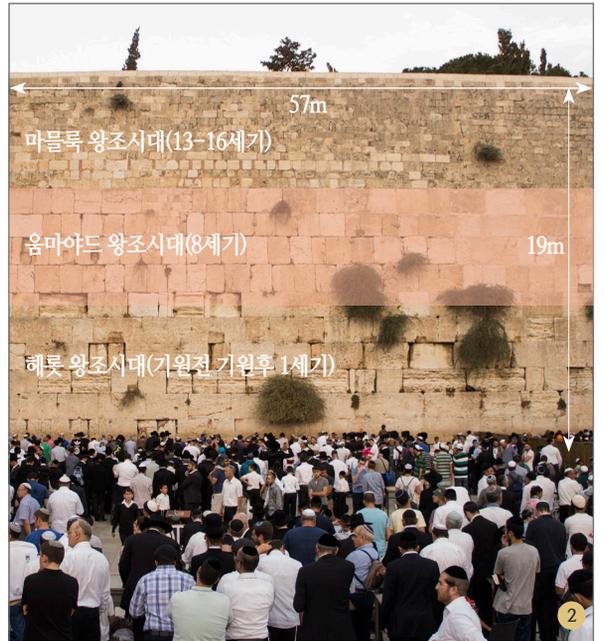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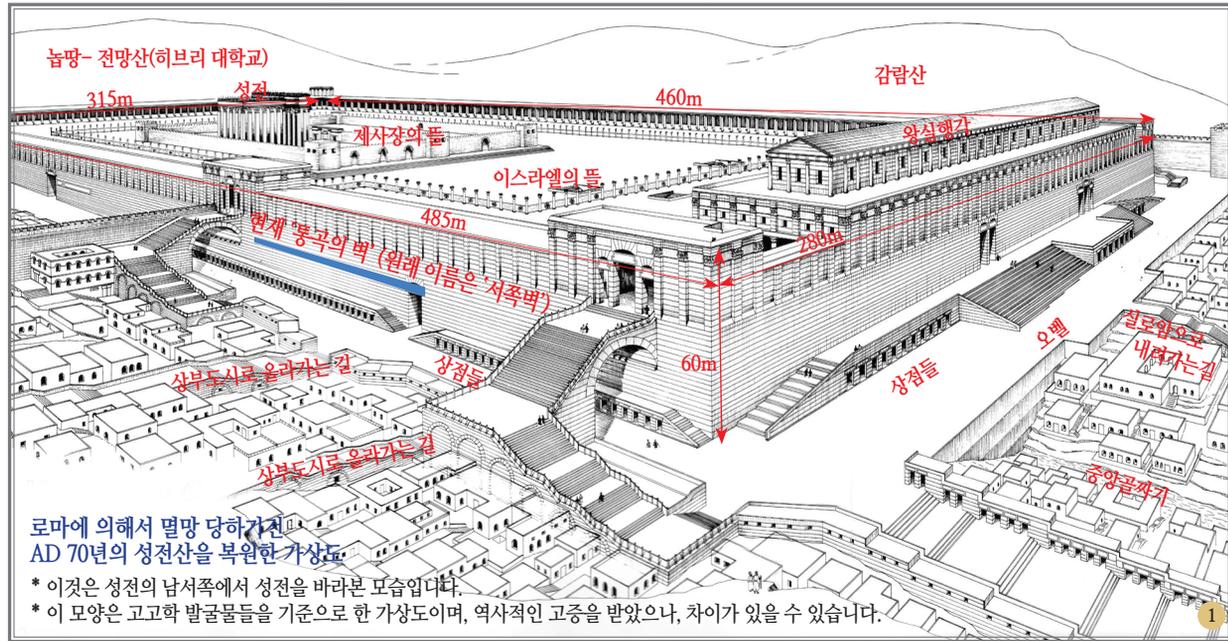
이익상 목사 (텔아비브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⑦

통곡의 벽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한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10명 중 9명은 '서쪽 벽' (Western Wall)을 꼽을 것입니다. '서쪽 벽'이라고 하면, 다들 어딘가 어리둥절할 수도 있고 성지순례를 해본 사람들도 몇몇 분은 "나 거기에 가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곳을 유대인들은 '서쪽 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서쪽벽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랍비들의 전통 때문인데요. '서쪽 벽'이라는 이름은 옛 예루살렘 성전(마당을 포함한 모든 성전) 서쪽의 벽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전산'(하르 하바이트)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는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과거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연구하는 학자나 랍비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꺼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전통에서는 (1)거룩한 성전에는 제사장만 밟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고 (2)현재는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버린 곳에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서쪽 벽'을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정했습니다. 성전의 서쪽벽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거의 모든 곳이 발굴이 되어져 있어, 과거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남아 있는 이 성전 유적은 헤롯 대왕(74/3-4BCE)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헬통상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으나하는 문제로 정체성을 의심받던 헤롯은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의 지배계층으로부터 환심을 사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과거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보충하여서 유대 땅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기원전 19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사실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헤롯 대왕은 그 성전의 완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기원전 4년에 사망),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의 증손자인 아그립바 2세(48-66년 재위) 때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늘 공사하는 사람의 들쭉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운명은 기구합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 후 5년도 못되어서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으니 말이지요.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서, 폐허로 남겨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 주변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 대항하여 항쟁을 일으키는데, 135년에 이 항쟁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갈릴리 지역으로, 또는 지중해 연안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 후 2세기 3세기의 로마 황제가 때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간헐적으로 허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한 콘스탄틴 황제 때에 이르러서야 (313년) 비로소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번, 성전 멸망 추모일(아브월 9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기도하는 것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들,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는 이곳에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산의 무너진 서쪽벽, 그나마 성전이 서 있었던 성전산의 흔적으로 가장 잘 남아있는 이곳에서 대규모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예루살렘 출입이 허용된 후, 약 100여 년이 지난 425년에 공식적으로 다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거주가 허락되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일년에 딱 한번 이 성전산의 옛 벽이었던 서쪽벽이라도 만져볼 수 있었으니, 그곳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을 지는 아마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벽을 만지며, 성전의 멸망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집이 이런 폐허가 되기까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자신들이 받게 된 고난에 대해서 회개하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단지 그들이 기록된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 회개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3:36-38)

그들은 율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율법)을 옳게 해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준 예언자들의 외침에 귀를 막았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서 전하신 복음을 짐작처럼 내던져 버렸기에 당했던 아픈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아직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설명

- 1 성전의 건축**
 - 기원전 20/19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다 손질이 끝나기까지는 적어도 46년이 걸렸다.(요 2:20)
 -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일부 해체해야 했다. 왜냐하면 헤롯이 계획한 성전의 크기는 하스모니아 시대의 성전보다 3배나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 크기와 계획이 너무나 커서, 완공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 전 8년동안 100만톤의 돌을 먼저 만들어 놓아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 성전벽을 한번 돌아가는데만 거대한 돌이 800~1,000개가 필요했다. 평균적으로 성전을 이루는 돌 하나의 무게는 4.1t이었다.
 - 회반죽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확한 틈새 맞춤으로 성전벽을 만들었다.
 - 18,000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되었다.
 - 성전 건축이 완전히 끝난것은 기원 후 60년이 지나서이고 완공 후 5년만에 로마에 의해 붕괴되었다.
- 2 통곡의 벽 - 서쪽벽의 일부로 폭 57미터, 높이 19미터의 벽이 서있다.** 실제 서쪽벽은 길이가 약 480~490미터, 평균 높이 32미터이며, 가장 높은 곳은 약 60~80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사진 ①번 청색선 부분의 규모만 남아있는 것이다.
- 3 바르 미츠바 (유대인 남자 아이의 성년식) -** 가장 거룩한 곳에서 아이들이 유대인 성년으로서의 시작을 의미있게 지내려는 부모들은 서쪽벽을 찾아와 성년식을 한다. 성년이 되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권은 난생 처음으로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성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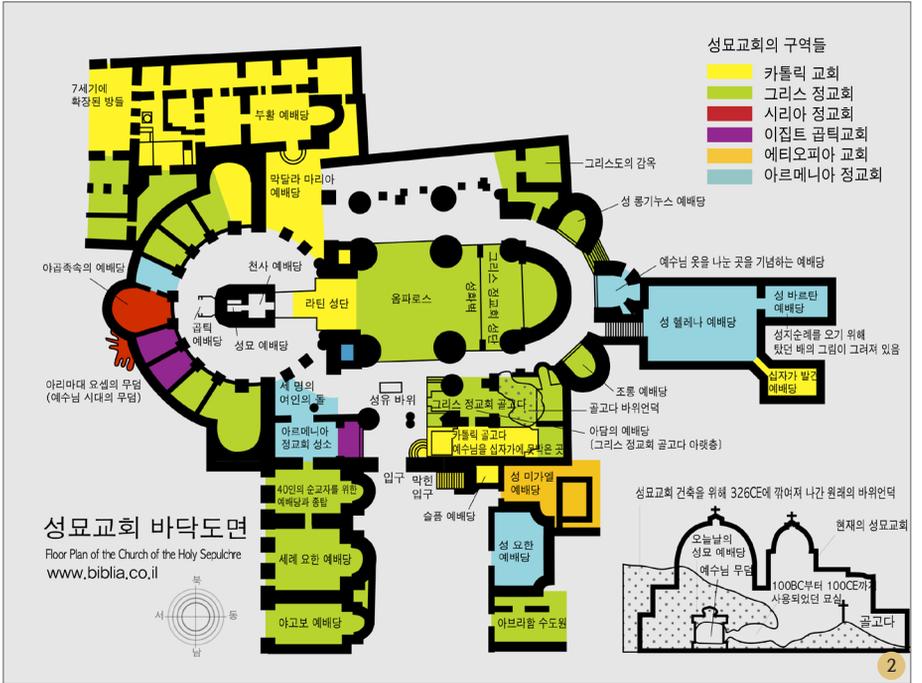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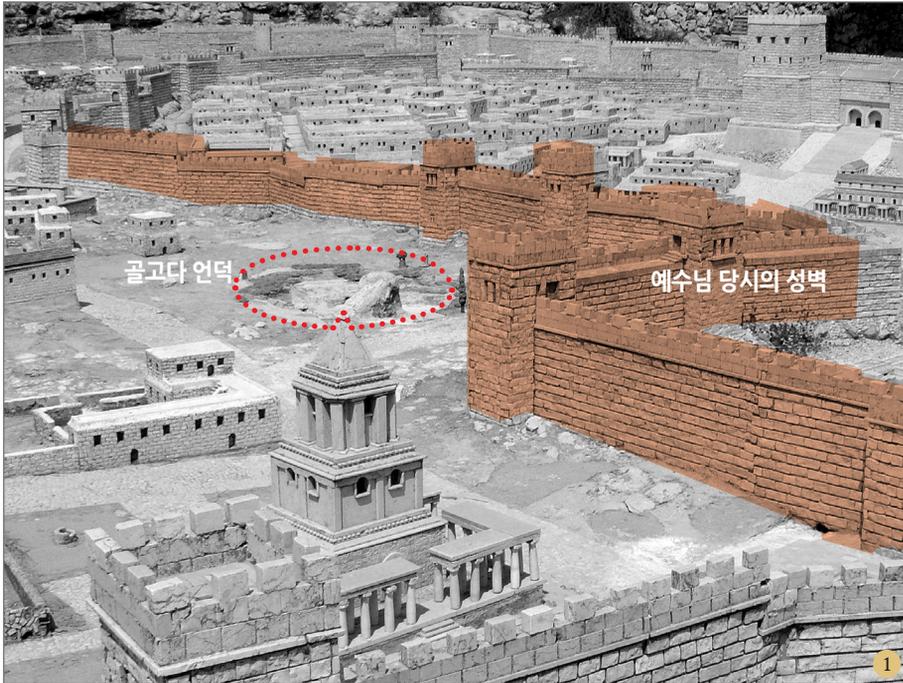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⑧ 성묘교회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쌀 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 27:33-37)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곳이라면, 단연 성묘교회(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를 꼽을 것입니다. 지금 뿐 아니라, 천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시대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예루살렘 왕은 살아생전에 스스로를 “왕”이라고 단 한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성묘교회의 수호자”라고 불렸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늘 전세계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찾아온 순례객들로 북적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성묘교회에 도착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옛 골고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골고다의 바위 위에 세워진 육중한 교회가 바위 언덕 위에 턱하니 놓여진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위 언덕의 모습이라곤 유리에 뒤덮혀 조금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는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필요했던 돌을 쓰던 채석장이었습니다. 버려진 채석장의 한 바위언덕을 십자가 처형장으로 사용했는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성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진 어느 곳이 아니라, 성문을 나오자마자 바로 있었던, 그야말로 사람들이 오가는 길 옆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이 빈번히 다니는 예루살렘의 서쪽 성문 옆을 사형장으로 사용한 이유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도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높지 않았습니다. 약 2미터 내외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보통 빨리 죽지 않는데, 매달려 있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했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지만, 그 언덕의 높이(대략 4미터)가 그리 높지도 않았습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형장인 그 장소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들이 너도나도 찾아와 순례를 하는 성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로마 황제 하드리아노(117-138년 재위)는 바르코흐바의 항쟁(132-135년) 이후에 골고다 위에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을 건설합니다. 이방의 성소가 되어버린 골고다 언덕은 콘스탄틴 황제에 이르러서야 건물로써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용인하고(313년), 그후 십여년이 지나 325/6년에 아프로디테 신전을 해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묘교회를 건설하게 된 것이 현재 성묘교회 건물 역사의 시작입니다. 콘스탄틴이 성묘교회를 건설하면서 두개의 거룩한 장소를 하나의 건물에 담아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614년에 페르시아의 침공 때, 교회가 일부 소실되기는 했지만, 630년에 다시 복원되었고, 1027/8년 이슬람의 파티미드 왕조 때 완전 파괴되었다가, 곧 20년 뒤에 재건되는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객들이 보는 성묘교회의 외양은 십자군 시대에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해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그 골고다 위에

교회가 있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도 성묘교회는 누구의 소유라기보다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종파의 기독교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한 지붕 아래에 있었으나,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이 평화는 1853년에 깨져버립니다. 교회들이 거룩한 장소들에 대한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미 몇 세기를 거쳐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있던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보다 넓고 중요한 장소들을 차지하였고, 뒤늦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작은 구역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성묘교회는 거룩한 장소이자, 불안한 평화가 줄타기를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자리를 차지한 종파들이 자기들의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정해진 예배시간이나 청소 공간을 조금만이라도 벗어나거나, 심지어 타종파의 사제가 자기의 구역을 들어오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콥트 교회의 성직자가 성묘교회의 옥상 쪽 자기 구역의 의자에 앉았다가 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의자를 20cm 정도 조금 옆으로 그늘 쪽으로 옮겨 앉은 곳이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구역이어서 두 종파간 성직자들의 충돌로 11명이 병원에 후송되었고, 2008년도에는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들

과 아르메니아 정교회 사제들이 예배 시간과 관련된 충돌로 집단폭력이 있었던 것은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서 유튜브에서까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묘교회를 찾을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비어 있는 예수님의 무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골고다를 찾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너무나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은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님은 심지어 그분의 생명마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는 가지려고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진설명

- 1 골고다 언덕 - 예루살렘 성의 서쪽벽에 있는 성문을 나오자마자 우편에 있는 버려진 채석장이다. 예수님 당시 성문은 현재 투터란 교회에 남아있다. (빨간색 원형 점선안이 골고다 언덕)
- 2 성묘교회 바닥도면
- 3 골고다 돌 - 예수님 당시의 골고다 언덕의 돌
- 4 성묘교회 마당 - 입구 중에 입구 위에는 벌써 150년째 세워지지 않은 사다리가 있다. 저 사다리는 1852년에 처음 기록에 등장하는데, 저 구역이 어느 종파의 구역인지, 그리고 누가 저 사다리를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종파의 사람도 저 사다리를 옮길 수 없다. (빨간 원형 점선 안 - 장문 아랫쪽 사다리)

예루살렘 <성묘교회>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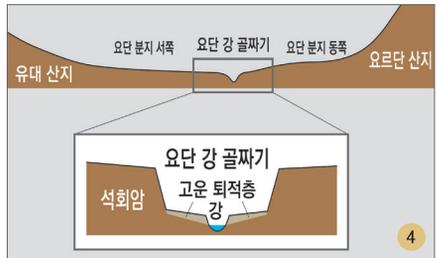
성지순례 이야기 ⑨ 요단강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수 3:16)

헬몬 산에서 터져나온 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요단강은 남북으로의 길이지만으로도 약 250km나 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수량이나 강폭과 관계 없이 일년 내내 쉬지 않고 흐르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요단강은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첫번째 기적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생긴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려고 퀴를 댄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옮기자 강물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수 3:16-17) 강물이 멈추어진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와 함께 요단 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걸음을 말아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지고 여러고 맞은 편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왕하 2:8)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보낸 후, 엘리사가 다시 강을 건너 여러고로 돌아올 때, 엘리야가 두고간 걸음을 내려치니 강의 물줄기가 다시 한번 섰습니다. (왕하 2:14)

인테, 자연의 섭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심했던 제 이성의 아픈 곳을 꼭 찌르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강물이 멈추어진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자세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널 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수 3:16)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아담에서 끊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위에서 말했던 역사 기록들에서도 항상 요단 강은 아담 주변에서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가장 부드러운 퇴적층인 데다가, 강 옆으로 깎아지르는 퇴적층 절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 강에 얽힌 또 다른 기적 이야기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가 나아만의 종노릇을 하던 여자 아이로부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하지요. 그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왕하 5:10) 그런데 나아만의 눈에 요단 강은 들어가면 낮게 되는 강물이 아니라, 그저 흙탕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들어가면 피부병을 악화시킬만한 흙탕물이요, 그보다도 깨끗한 물은 자기 나라에도 많지요. 다메섹 강도, 아바나 강도, 바르발 강도 요단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나은 강들이었습니다. (왕하 5:12) 요단 강물이 흙탕물인 이유는 강물이 흐르는 요단 계곡이 고운 흙으로 이루어진 퇴적층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의 가장 부드러운 퇴적층 지대가 아담 지역이고요, 깨끗하던 요단 강물이 요단 계곡의 퇴적층을 지

나면서 물이 탁해지기 시작하는데, 아담 지역에 오면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나아만이 요단 강의 어디 즈음에서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만의 여종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마리아나 그 주변 지역에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나아만을 보냈다면, 바로 아담 지역으로 내려와서 몸을 담그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흙탕물인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워 보이는 흙탕물에 몸을 씻었을 때 아이러니 하게도 나병으로 더럽혀졌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또 다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 이성적 사고와 관계없이 요단 강물이 끊어졌듯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도 단지 제 이성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계가 있어서 요단 강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은 뭐니뭐니 해도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기 결단이자, 내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단절과 새로 태어남! 이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요 1:28) 그냥 친척 요한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 과거를 가진 이는 나인데, 왜 주님께서 내게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도 아마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포기해야 할 과거가 무엇이란 말이라는 거지요. 또 무엇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의’라는 말입니다.

요한처럼 저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셔야만 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보는데, 철저하게 사람이 되시기 위한 자기 비움을 ‘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함’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지만,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율법’이 아닌, ‘하나

님의 의지’ ‘자신의 계획’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지위와 특성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시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스스로 선택한 내려놓음, 그리고 포기가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주신 가장 처음의 메시지는 내려놓음, 자기 비움, 포기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아는 척하게 되고, 내가 더 잘 보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내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면 점점 더 참견하게 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지적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리 잘난 사람이 많을까요? 왜 저는 늘 저를 내세울까요? 큰 숨 한번 내쉬고, 이 기적이 제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진설명

- 1 요단강 - 정비된 모습의 요단강
- 2 퇴적층 지질의 요단강 - 왼쪽이 지형이 낮은 유대 산지이며 오른쪽 절벽이 부드러운 퇴적층으로 된 요르단 산지
- 3 요단강 홍수 - 1935년 여러고 앞 요단강의 홍수
- 4 요단강 단면도 - 요단강 양 옆쪽이 가장 부드러운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지질 특성을 갖고있다

이스라엘 <요단강>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델라비트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⑩ 헤브론



가로 61m, 세로 36m, 높이 15m의 육면체의 건물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라를 매장할 무덤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사용할 무덤으로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한 막벨라 굴 위에서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헤롯 대왕이 헤브론에 건설한 웅장한 건물이 있는 곳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땅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로 61m, 세로 36m, 높이 15m의 육면체의 건물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라를 매장할 무덤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사용할 무덤으로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한 막벨라 굴 위에서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지금도 그 건물에는 막벨라 굴에 장사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를 기념하는 큰 돌들이 나란히 누워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매장 방식은 가족묘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세마포에 잘 싸서 동굴 무덤에 안치하고 나면 2~3년 뒤에는 세마포와 함께 시신은 모두 썩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뼈들을 잘 수습해서 동굴 무덤의 한쪽에 쌓아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뼈와 아들의 뼈가, 아버지의 뼈와 어머니의 뼈가, 그리고 손자들의 뼈가 함께 뒤엉켜 쌓이게 되겠지요.



이런 매장 방식은 유목 방식의 생활 풍습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날씨가 더운 광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의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해가 멀어지기 전에 매장을 합니다.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경우는 집 주변 가족들의 매장지로 사용하는 동굴 무덤에 매장할 수 있지만, 집을 떠나 하루 거리 이상의 장소에서 목축을 하던 중 죽을

을 맞이하면 헤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동굴무덤에 매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서 급하게 임시로 매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의 없이 대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가족의 시신이 광야의 동물들에게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변에서 시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동굴을 찾습니다.

일단 바위 굴이나, 그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서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굴이 없는 평지에서는 시신 위에 돌을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동물들이 부패하는 시신의 냄새를 맡고 돌을 흠어버지 못하도록 꼼꼼하고 튼튼하게 잘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매장된 시신 역시 2~3년 뒤면 뼈만 남고 모두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양을 치러 나갔다가 그 유골들을 수습해서 가족 묘로 사용되는 동굴로 옮기는 것입니다. 결국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급하게 매장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다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죽은 뒤에 그 주검이 선조들이나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는 가족 무덤의 매장 방식에 근거해서 왕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열조와 함께 자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열왕기 27번, 역대기 11번) 선조들과 함께 한 동굴 무덤에 누웠다는 표현입니다.

헤브론은 1900년대 초까지 다수의 이슬람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소수인 유대인들 약 1만 명이 평화롭게 섞여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 영국이 이스라엘 땅을 식민통치를 시작하면서 점차 이 조용한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헤브론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이슬람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교인들의 성장세가 이슬람의 성장세보다 급격히 많아지자, 이들 간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이슬람 사람들의 수보다 적었음에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은 늘어나는 유대인들의 수가 매우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급기야 1929년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67명의 유

대인들을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학살을 하면서 헤브론에서 지켜지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을 실효 지배하던 영국은 회당 마을에 살던 750여 명의 유대인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들 모두를 헤브론 밖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헤브론 전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800년 넘게 그 땅을 지키며 살던 유대인들은 식민통치 시대에는 영국군에 의해, 그리고 1950년 이후에는 헤브론을 실효 지배하던 요르단에 의해 헤브론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헤브론에 다시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된 것은 1967년 6월 전쟁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몰아내고 헤브론을 수복하면서, 헤브론에 살았던 옛 유대인들이 땅과 건물을 몰수 당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2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된 헤브론에는 약 8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장을 한 채 그 땅을 지켜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된 막벨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벨라는 단지 오래된 무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산이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을 따라가신 땅인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복의 증거가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시온에 대한 꿈을 그릴 때, 그 희망의 토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 막벨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죽음을 무릎쓰고서라도 그 곳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 살아남더라도, 그 한 명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토대를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순교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던 신앙의 선배가 남겨놓은 그 거룩한 토대 위에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는 장래의 세대를 위해서 어떤 기초를 다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곰곰히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 1 헤롯대왕이 막벨라 굴 위에 건설한 거대한 건물 - 건물에는 여섯개의 커다란 돌이 있는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무덤을 기념하고 있다
- 2 막벨라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 - 현재는 이슬람 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 3 막벨라는 1994년 이래로 이슬람 모스크 구역과 유대인 회당 구역으로 나뉘어져 관리된다 - 일년에 열흘간 이 두 구역의 장벽이 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의 문제로 이 두 구역은 철저히 분리된다

이스라엘 <헤브론>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11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24-26)

사해바다 남쪽에는 남북으로의 길이가 8km, 동서의 길이가 4km, 그리고 땅으로부터의 높이는 약 200m가 되는 독특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분명히 산인데, 산이라고 부르기에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 주변의 산들이나 지형에 비해서 그 모양도 좀 다르고, 더군다나 '산'이라 불리면서도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산의 이름은 '소돔산'인데, 이 산의 80%는 소금입니다. '소돔산'이라고 불리지만, '소금산'이라 불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옛 사람들은 소금으로 이루어진 이 산 주변 어딘가에 이제는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소알 성으로 도망가는 길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니, 이 소금산이 아마도 성경의 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이 '소금산'을 '소돔산'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해서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불로 망한 그 도시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오늘 날에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이 두 도시의 이야기에 대해서 고대 서아시아 지방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기원전 2,500-2,250년 사이에 시리아의 에블라 지역에서 기록된 약 1,800개의 토판들의 이야기 속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이름이 발견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곳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황당무계한 추측들이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력하게 추정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사해바다의 요르단 쪽에 밥 엷-드라(Bab edh-Dhra)라는 곳이 있는데 (1965년에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 기원전 3,100년부터 대략 기원전 2,250년까지 있었던 이 도시가 소돔으로 생각되는 매우 유력한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15km 아래에 있는 누메이라(Numeira)라고 불리는 지역(1975년부터 체계적인 발굴 시작)은 고모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밥 엷-드라는 가로 세로 약 200m의 거대한 도시(약 40,000㎡)로 7미터 두께의 진흙으로 쌓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면적으로 보아 대략 2,300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세대를 걸쳐 그곳에서 발견된 무덤만도 20,000개가 넘고, 그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이 500,000명,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매장된 토기만도 3백만개 이상이 출토되었으니,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따지자면, 고모라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메이라(고모라)는 소돔보다도 그 면적이 두 배정도 더 컸습니다. (약 80,000㎡) 사해바다 주변의 황량한 광야 한 가운데에 대규모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말이지요.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니, 이곳에서 생산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매우 독했을 겁니다.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누메이라와 그 주변에 있는 샘들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의 면적이 크다는 것은, 곧 사람들도 소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도시는 사해바다 주변을 대표하는 풍요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황량한 광야, 마실 수도 없는 물인 사해 바닷가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 푸른 대추 야자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고, 신선한 샘물이 팔팔 흐르며, 그 주변으로는 광활한 포도원이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의 도시를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는지,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롯의 눈에 그 땅이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같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눈과 기준은 달랐습니다. 드러나는 풍요의 뒤에 그 풍요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풍요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은밀했던 그 타락과 죄가, 이제는 드러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으리 만큼 하나님을 향한 양심도 무뎠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참혹한 결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밥 엷-드라와 누메이라 지역에 가면 전문적인 고고학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둥근 모양의 불에 탄 숯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때 약 1,000년 가까이 번창했던 도시들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폐허가 되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소유'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하는 이들은 절대 그것을 뛰어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

해할 수 없습니다. 일차적인 감각이 주는 쾌락과 내 눈과 귀와 배를 채워주는 풍요를 이미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살고 싶었다면, 그저 앞만 보고 달려야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했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것들, 두고 온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이 났나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것 하나는 건져야하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이 기둥을 지날 때이면, 롯의 아내가 저를 보고서는 “너는 그리 살지 말아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사진설명

- 1 소돔산 - 유대 광야를 이루는 산지의 모습과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이 소돔산의 주 성분은 소금이며, 거대한 소금 덩어리 위에 광야의 먼지가 뒤덮혀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 2 소금 기둥 -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

사해바다와 그 주변



소돔과 고모라

사해바다의 요르단 쪽에는 다섯 개의 도시가 발굴되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소알와 벨라가깃담 골짜기에 진을 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섯 왕이 다섯 도시들이 아마도 지도에 표시된 다섯 도시일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정한다.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12 아라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신 6:4)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신 6:4)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오직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에 가장 위협이 되었을까요? 바로 '문화'입니다.

흔히들 이방의 종교나, 가나안의 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위협하는 적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이방의 신들은 반드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슬며시 들어와서 가랑비에 온 옷이 흠뻑 젖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이 젖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큰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아라드(우리말 성경, 아랏)에 가면, 남쪽 유대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두개의 돌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세워진 돌 기둥들을 '주상'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참고, 출 34:13), 이렇게 세워진 돌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성소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소라면, 한 개의 돌 기둥, 한 개의 향단이 있어야 하는데, 돌 기둥도 두 개, 향단도 각각의 돌 기둥 앞에 한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의 모양 만으로 본다면, 두 명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 되는 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성소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주변 국가나 민족들과 함께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도 했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날처럼 복잡한 국제관계가 있었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친구, 때로는 적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국제 관계에서 속국은 지배국의 강제 아래에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요즘 말로 선진국의 문물을 따라하는 것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 보이는 수단이기도 했지요. 강제이든 자발적이든 간에 문화의 교류는 피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문화적인 교류 가운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체성은 '다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와 '네'가 똑같다면, '나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라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과 차이가 없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은 산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믿음을 증거받았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모세는 '느보산'의 한 봉우리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십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송하였고,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최고의 신인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지, 풍요로운 평야지대의 농경 신들이었거든요. 남편인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아내인 아세라는 땅에서 그 물을 머금고 마치 아이를 출산



하듯이 소출을 내는 거지요. 광야에서 유랑하고 전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던 출애굽한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목과 더불어 이제 농업이라는 새로운 사회 경제 구조에 적응해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농경 사회에 뿌리를 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나라들과 행동 생 하며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더 화려해 보였고, 더 좋아 보였고, 더 합리적이어 보였고, 더 문명적이어 보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최고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지 않되, 단지 바알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만 앉혀 놓았을 뿐, 글썽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아세라랍니다. 아라드의 성소에 있는 두개의 돌 기둥과 향단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내 아세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종속, 무분별한 문화의 흡수가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요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앗수르의 영향 아래에서 유대 땅에 범람하던 이방의 문화와 문화의 탈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숙히 뿌리내린 이방의 종교와 철학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바로 잡고자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622BCE)* 아라드의 그 성소가 훼파된 때가 기원전 7세기, 그러니까 그 훼파된 성소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풍조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위협을 받습

니다. 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나 조건이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위' 문화에 개방적인 사람들은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할 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위협하고 우리 신앙의 기준과 동떨어진 문화이거나, 그 반대의 풍조라면, 좀 답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꼭 막힌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때 아라드에서 살던 사람들처럼 두개의 돌 기둥을 세우게 될 테니 말입니다.

사진설명

- 1 아라드의 성소 - 뒤에 보이는 돌 기둥 두개는 각각 여호와(왼쪽) 하나님과 아세라(오른쪽)를 의미한다
- 2 폭풍의 신 바알 - 폭풍(천둥 번개)의 신인 바알은 그의 손에 칼 또는 번개를 들고 있다
- 3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 -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세라는 쌍둥이를 잉태하고 있다

* BCE : Before Common Era

이스라엘 (아라드)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13 나사렛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시니 그들이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눅 2:46-50)

여름이 되면, 저마다 가족과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산이나 강, 그리고 바다로 여행을 다녀올 겁니다. 팍팍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매일 똑같은 삶의 쳇바퀴에 변화를 주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어디론가 다녀올 수 있다면이야 감사하지만, 팍팍한 일상에서 그런 시간, 여유를 찾을 수 없는 가장이라면 가족들에게 많이 미안해 할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런 많은 가족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들과 예수님을 알고 있는 내 가족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싸움을 했을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 혼난 적이 있을까?” 하나님인 예수님을 두고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좀 불경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요셉과 마리아야 지극히 우리와 같은 사람 인지라 때로는 부부간의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클쎬요. 그런데요, 성경에 제 상상의 날개를 펴게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서 어린 예수님과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습니

다. 그런데 절기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때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나사렛에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을 재현해 놓은 '나사렛 빌리지'라는 곳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막내 딸, 노하를 잃어버린 겁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꼭 참으며 짧은 5분여의 시간 동안 별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노하를 찾았는데, 아이도 울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도와 함께 괜히 아내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물론 그렇다고 아내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 다. 맹세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화를 낼 정도로 용감하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데, 하룻길이나 간 다음 아이들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사흘 동안 정말 별별 생각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던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노하처럼 울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 다. 대뜸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랍니다. 어휴, 제 아들 같았으면... 뭐 어찌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도 했던 그저 노하와 같은 아이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정과 우리 가정은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나사렛의 요셉교회의 성화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일을 배우

는 예수님. 그리고 그런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흐뭇한 모습에서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도종환 시인의 '가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대화없는 남편과 아내를 그린 시입니다. 식기 중에서 제게 가장 여운이 남는 구절은 “본래 가구 들끼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입니다.

'가족'이라고 말하고 '식구'라고 이야기하지만, 함께 밥상에 다 함께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 한번 나눌 수 없는 이들을 어떻게 '식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서 야근이다 거래업체 사람과 저녁을 먹는다고 집에 오지 않고, 아이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야간자율학습이다, 학원이다 해서 한 밤 중에 집에 들어오고, 아내는 나름대로 친구들을 만나고 일을 한다고 집을 비웁니다. 서로 만나서 함께 밥먹을 시간은 커녕, 얼굴 볼 일도 거의 없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은 쉬는 날이라고 공부로부터 해방되어 친구들 만나러 나갑니다. 아버지는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 식이니 '삼식이니 하면서 면박을 주지요. '식구'라고 하지만, 식탁에서 밥 한번 제대로 같이 먹을 일이 없고,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내 가족들은 '가구'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집의 한 구석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 가정의 성화를 보건데, 예수님의 가정

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가난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늘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 한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식구,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말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정. 예수님의 가정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 여름 의무감으로 가는 피서라면, 오히려 다녀와서 더 피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피서'라는 이름으로 어딘가를 다녀오지는 못할 지라도, 정말 가족들이 식구가 되고 예수님의 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룬다면, 몇 십 번의 피서보다 더 의미있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진설명

- 1 나사렛 빌리지 -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약 400여 명이 살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 2 목수 -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어 '테크톤'을 우리말로 '목수'라고 번역하였다. 비록 '목수'로 번역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테크톤'은 나무만이 아니라 돌까지도 다듬는 기술자를 뜻한다.
- 3 거룩한 가족 - 요셉교회의 입구에 걸려있는 예수님 가정의 일상을 그린 성화

이스라엘 (나사렛)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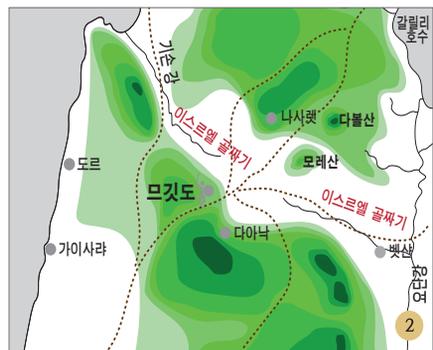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14 므깃도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
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
테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므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
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
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왕하 23:29-30)**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 기록을 남긴 사람은 이집트의 파라오 투트모세 3세(1481-1425 BCE)입니다. 투트모세 3세가 남긴 전쟁의 기록은 카르낙의 아문 신전에 남아있는데, 상세한 전쟁 기록은 오늘날에도 전쟁 전술의 역사에서 꼭 한번 다루고 가는 소재라고 합니다. 대군이 이동할 수 있는 평원이 아니라, 상대편이 예측하지 못한 협곡을 통해서 방어군의 허점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최초의 전쟁 장소가 므깃도입니다. 가나안 땅을 동서로 가르지르는 이스라엘 골짜기의 므깃도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므깃도가 역사의 첫 전쟁터가 되었을까요?



고대의 민족과 국가들은 예로부터 서로 교역을 하면서 문화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의 것과 서로 바꾸는 교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편히 이동할 수 있는 교역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수원지가 있어서

물을 공급받기 수월하던가, 넓은 농토가 있어서 식량을 공급받기도 편해야 하고, 왕래하는 길의 지형상의 편이함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길에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서 목적지까지 오가는 길에 크고 작은 상거래도 있으면 그야말로 제격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 바로 므깃도입니다. 그래서 므깃도는 기원전 6,000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살면서 농사도 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상거래의 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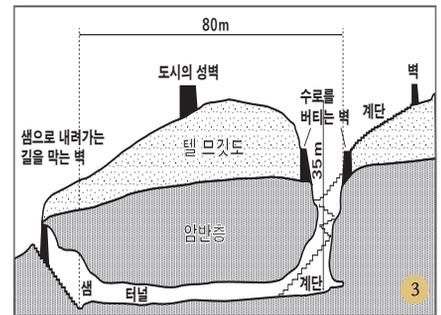
므깃도는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던 오늘날의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오가는 해안길(Via Maris)이 지나는 길목이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안길로 가든지, 중앙산지 길로 가든지, 또는 왕의 대로(King's Highway)를 가든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므깃도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므깃도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나라들, 그리고 히타이트 제국의 교차로이며 관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중요성을 이미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가 알아했습니다. 그리고는 므깃도를 점령하는 것이 천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과 같다고 천명하고 기원전 15세기에 역사에 기록할 만한 첫 국제전을 치른 것입니다.

므깃도를 점령하는 것은 제국의 교역로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길을 소유할 수 있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오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관리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고대 제국의 왕들이 이 길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실질적인 관리 도시인 므깃도는 가장 얻고 싶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므깃도의 전술상의 중요성 때문에 성경에도 므깃도와 관련된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므깃도를 점령하였다는 기록은 물론이고(수 12:21),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서도 므깃도 앞의 평원과 물가들은 주요한 전쟁터였습니다.(삿 5:19)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이자 당시 왕이었던 요람에 대해서 반란

을 일으켜 요람을 나봇의 포도원 터에서 죽일 때 함께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예후를 피해서 도망하다 죽은 곳이 므깃도이기도 합니다.(왕하 9:2)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요시아가 이집트 파라오 느고의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곳도 므깃도이지요.(왕하 23:29)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처럼 이 곳의 중요성을 간파한 솔로몬은 이곳에 오늘날의 기갑부대라 할 수 있는 전차부대의 주둔지로 병거성을 쌓았습니다.(왕상 9:15) 그도 그럴 것이 므깃도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적들에게 빼앗길 경우, 사마리아 지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므깃도의 무장과 방어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아합 때에는 므깃도를 더욱 요새화 시켰습니다. 방위에 용의하도록 수로 공사를 했고, 이곳 저곳에 현재 발굴된 것만으로도 450필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17개의 마굿간들을 만들어서 전략적인 방어요새이자, 병거성으로 체계화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이곳 므깃도와 므깃도가 전략적으로 방어하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빼앗겼을 경우, 왕국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므깃도가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곧 왕국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었을까요? 609년 요시아 왕이 므깃도에서 전사한 후, 왕국은 급격히 쇠퇴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왕국이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고대 서아시아의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령해야만 했던 므깃도, 그리고 왕국과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던 므깃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요한에게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선과 악이 겨루는 전쟁의 모티브가 됩니다.

므깃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며,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전쟁의 예언을 읽으면서, 피 비린내 나는 전쟁터인 므깃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으니만큼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했던 그 땅을 말합니다. 므깃도에 올라서면 눈에는 평온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지만, 귀에는 아직도 그 때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진설명

- 1 **므깃도의 마굿간** - 병거들을 끌 말들을 관리하던 장소. 므깃도에서는 17개의 마굿간이 발굴되었다
- 2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의 지형과 길들** -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르는 이스라엘 골짜기의 므깃도는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다
- 3 **므깃도의 수로** - 기원전 9세기의 아합시대에 건설된 므깃도의 수로는 전시에 성밖에 위치한 샘의 물을 성 안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터널이다

이스라엘 <므깃도>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15 텔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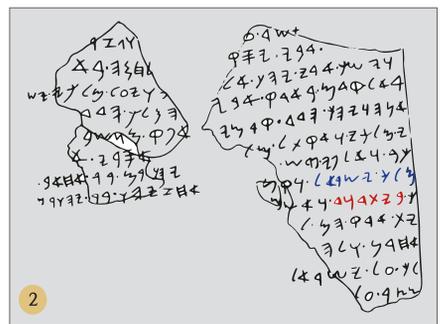
그(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 지라 (왕하 8:28)

고대의 바벨론과 이집트의 역사 기록물 중에서 왕에 대한 기록들은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이거나, 어떤 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였다는 이야기들로 빼곡히 차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역사기록은 신들이 보호하는 왕들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실패한 전쟁도 없고, 실패한 정치도 없이 그야말로 왕에 대한 칭송 일색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단편적이고 성공적인 통치와 건축에 대한 정보 전달 위주의 고대 서아시아의 기록과는 달리, 구약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왕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구약성경만의 독특한 왕들의 역사 기록방식이 나타납니다.

왕의 긍정적이고 성공한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 왕이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마저도 거름종이 없이 기록된 성서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성서의 내용이 허구에 근거한 문학의 일종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고대국가의 역사기록이 자기 왕에 대한 죄악상을 그렇게 낱낱이 기록했다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다윗입니다. 고난의 삶을 헤치고 왕이 된 영웅적인 인물만으로도 충분한 이야기에, 왕이 저질렀던 성적인 범죄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왕자들 간의 암투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이야기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고대역사

기록의 상식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다윗에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 보는데, 다윗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기보다는 고대 이스라엘 문학에서 왕국의 시조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는 설화에 등장하는 허구적인 주인공에 불과하며, 역사성을 담보하기 힘들지 않냐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중요시하는 학자라면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군의 고고학자들이나 역사 학자들은 정말 그렇다고 주장하는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쟁을 했다고 하는 그 나라의 기록을 아직 발굴하지 못했을 뿐더러, 가끔씩 발굴되는 비문이나 토기에도 다윗과 벌인 전쟁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3년과 94년에 걸친 고고학 발굴이 텔 단(Tel Dan)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때에 발굴 책임자인 비란(Biran)이 발굴하고 싶었던 것은 북왕국 첫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여로보암이 쌓은 제단 터부터 시작해서 고고학 역사에 오랫동안 회자될 중요한 많은 유적과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백미를 꼽으라면, 현무암에 아람어로 새겨진 돌판일 겁니다. 기원전 9세기에 기록된 이 돌판에는 의례 고대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아람 왕 하사엘이 승리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돌판에는 하사엘이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룬 전쟁의 상대편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북왕국)과 다윗 왕가(남왕국 유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지요. 아쉽게도 깨진 돌판에서는 도대체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느 왕들과 전쟁을 했는지 그 이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돌판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주었습니다. 왕하 8장 7-15절에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북왕국과 남왕국 모두)이 벌이게 될 엘리사의 잔혹한 전쟁 예언이 나옵니다. (왕하 8:12) 그러고는 곧이어 서로 친족 관계인 요람(북왕국)과 아하시야(남왕국)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왕하 8:28) 현무암 돌판이 기록된 기원전 9세기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왕이 벌인 전쟁의 이야기는 아마도 열왕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사엘과 요람-아하시야와의 전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사엘이 남왕국 유다를 가리킬 때에 '다윗 왕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원전 9세기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판의 발견으로 다윗이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후대에 글 꽤나 쓴다는 사

람이 창작한 문학작품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일 것이라는 주장을 단번에 뒤집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 왕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고, 왕가의 시조인 다윗(기원전10세기)을 따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유다 왕국을 이미 적어도 기원전 9세기부터 '다윗 왕가'라고 불렀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다윗의 역사성을 보증하는 문혀있는 고고학 유물들이 얼마나 더 많이 발견될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매년 여름마다 이스라엘의 이곳 저곳의 발굴지역에서 발견되는 발굴물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진 설명

- 1 **여로보암이 쌓은 제단** - 텔 단(Tel Dan)에서 발굴된 제단 터.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기원전 2-3세기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제단의 터가 발굴되었다.
- 2 **텔 단 비문(Tel Dan Stele)** - 아람 왕 하사엘의 시대에 고대 아람어로 기록했을 이 비문에는 하사엘의 전쟁 상대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고 있는데, 파란색 글씨는 '이스라엘의 왕', 빨간 색 글씨가 '다윗 왕가'이다. 이 비문은 현재 이스라엘 국립 박물관에 전시중이다.

이스라엘 (텔 단) 성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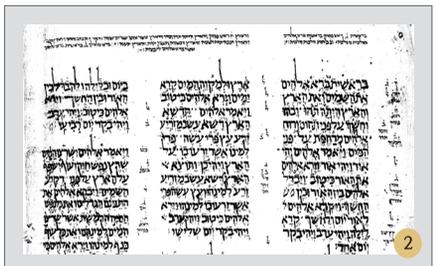
이스라엘 땅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16 사아라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의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신 10:17-19)

성서의 역사는 숭고합니다. 그러나 그 유고한 역사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의 역사를 증명해 줄만한 증거들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1947년 이전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은 10세기 초반에 티베리아스에서 기록된 알렘포 사본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 티베리아스에서 기록되었지만, 시리아의 알렘포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보관되었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알렘포 사본이지요. 그런데, 이 사본은 1947년 시리아 지역의 반 유대주의자들의 폭동에 의해서 화재로 일부가 손상됩니다.

알렘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즈음에 사해 바다 북쪽 해안가에 있는 쿨란이라는 지역의 11개 동굴들에서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들과 파피루스들이 대거로 출토되는데, 이 두루마리들은 성경의 역사를 알렘포 사본보다 1,000여년 앞당겼습니다.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성경이 다 발견된 쿨란의 두루마리들은 기원전 2

세기를 전후해서 기록된 것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모세가 대략 기원전 13세기에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알렘포 사본은 모세의 시대와 대략 2,300년의 시간적인 간극이 있었지만, 쿨란에서 발견된 사본들 덕분에 모세와의 시간 차가 1,000여년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쿨란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들을 근거로 학자들 사이에는 성경의 기록 역사를 대략 기원전 13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로 보고 치열한 논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근거를 두는 학자들은 성경 기록의 역사를 기원전 13세기나 그 바로 직후를, 좀 더 비평적인 학자들은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 사이가 성경이 기록된 시기라고 추정합니다.

2008년에 히브리대학교 가핀켈(Garfinkel) 교수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장(삼상 17장)이었던 엘라 골짜기의 한 언덕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도시는 수 세기에 걸쳐서 마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텔"(Tel)이라고 불리는 작은 인공 언덕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덕의 도시는 아주 독특하게 단 한 시대에만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고, 곧 버려졌습니다. 텔이 아닌 것이지요.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마을이 있었던 시기가 기원전 11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중반(1050-970BCE: 성경에서 사울-다윗의 시대)으로 아마 삼상 17:52에 나오는 "사아라임"(뜻. 두 개의 문)일 것이라는 것이네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4미터 두께의 성벽의 길이가 약 700미터에 달하고, 5

1. [...을(를)] 하지말라. 그리고 [...을(를)] 섬기라.
 2. 노예와 과부를 재판하라. 고아 (***)를 재판하라.
 3. *와 나그네를*. 어린 아기를 위해 변호하라. 가난한 사람과 (****)를 변호하라.
 4. **과부**. 왕의 손에서 [구제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5. 가난한 사람[과] 노예를 보호하라.

3

토기의 깨진 부분 문맥 상,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
 첫번째 줄 두번째 줄 세번째 줄 네번째 줄 다섯번째 줄
 분명한 글씨 토기의 깨진 부분
 희미하지만, 그렇게 읽을 수 밖에 없는 부분

톤 무게의 거석이 도시 성벽을 이루는 마름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전쟁을 대비한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10킬로미터 떨어져 블레셋의 도시이자 골리앗의 도시인 가드가 있으니 말이지요. 아마 골리앗의 군대를 맞선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꾸렸다면, 바로 이 곳이 아니었을까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이 도시의 발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발굴하던 중, 도시의 성문 주변에서 가로 세로 약 15센티미터인 깨어진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 토기를 발견한 사람이 히브리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는 한국인 학생입니다. 이 토기가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이 토기의 글자를 좀 더 명확하게 구성한 다음 롤스톤(Rollston)과 뷔에쉬(Puech)와 같은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이 토기에 기록된 글자는 기원전 10세기의 것이며, 기록된 고대 알파벳으로 기록된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을(를)] 하지말라. 그리고 [...을(를)] 섬기라.
2. 노예와 과부를 재판하라. 고아 (***)를 재판하라.
3. *와 나그네를*. 어린 아기를 위해 변호하라. 가난한 사람과 (**-**)를 변호하라.

4. **과부**. 왕의 손에서 [구제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5. 가난한 사람[과] 노예를 보호하라. 나그네를 도우라.

신명기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과부, 고아, 나그네에 대한 공정한 재판(신 10:17-19)과 노예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들(신 16:10-15)의 원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 시기가 위에서 말한대로 11-10세기로 생각되니, 현재까지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신명기의 기록 시기보다 신명기가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적게는 300년, 길게는 800년 끌어 올리는 셈이 된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던 성경 본문의 역사를 증거하는 돌판을 보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설명

1. 키르벳 케이야파 (Khirbet Qeiyafa) -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기원전 10세기 전반에 엘라 골짜기에 건축된 도시
2. 알렘포 사본 - 알렘포 사본의 창세기 시작 부분
3. 키르벳 케이야파 토기 (Khirbet Qeiyafa Ostrakon) 2008년에 엘라 골짜기의 사아라임의 성문 주변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에 새겨진 고대 알파벳

이스라엘 <사아라임>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17 목자들의 들판 교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8-14)

‘목동’이라고 하면, 무언가 목가적인 낭만이 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양떼들을 풀어놓고 서는 풀피리를 불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달게 자고, 밤의 별을 보면서 별 하나 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며 재미있는 별들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지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목동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이들 역시 ‘목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깨에 어린 양을 들쳐 메고서는 긴 지팡이를 짚고 양떼들 사이를 걸어가는 성화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양치기는 그리 좋은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미쉬나(Mish, Kidd, iv.14)에서는 목자들을 부정한 직업 중의 하나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양과 염소들이 안식일이라고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안식일에 위협을 당한 양과 염소를 목동들이 구해내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지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들의 많은 수는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가족들만으로는 돌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양과 염소들을 몇백 마리씩 맡기게 되지요. 그런데 그 양 구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광야는 그저 평화로운 초원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노리는 늑대, 여우, 하이어나들이 득실 거리는 생존의 전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양과 염소를 지키는 과정에서 목동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동물보다는 역시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겠지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는 목자의 의무로 양과 염소를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목자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 포기할 수 있는 양과 염소의 수를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돌아오는 길이지요. 목동의 머리 속에는 그 계약의 내용이 어른거릴 겁니다. 내가 끌고 나간 양과 염소에 그 수가 한 둘 빠진들 계약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말이지요. 그러면서 한 두마리 챙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런 목자들이 가장 유혹 받는 기간은 1월경입니다. 광야의 푸른 초원이 신선한 풀들로 한창일 때가 양과 염소가 출산을 하는 시기이거든요. 대단히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하고 있어서 목자를 고용하여 목축을 해

야할 정도로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진 이들은 자기 소유의 가족 가운데에서 몇마리가 암컷인지, 그리고 먼 곳으로 풀을 뜯으러 나간 암컷 양과 염소 가운데에서 몇마리가 수태를 했는지, 대략 몇마리가 수태했다고 치면, 그 중에 몇마리가 산란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머리 속으로 대략 몇마리의 새끼 양과 염소가 태어나겠지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목자 생활을 한 두해 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결국 태어나는 새끼 양과 염소 중에 몇마리는 내다 팔아서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도 있고, 몇마리는 잡아 먹을 수도 있고, 몇마리는 자기 집에 가져다 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계약의 허점과 자기가 가진 위치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일년 몇 십마리 양과 염소를 뒤로 챙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과 염소를 은근슬쩍 챙기지 못한다면, 아마 목자들 사이에서 고지식한 사람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고용된 목자(삯꾼 목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요 10:7-1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인용되리 만치 당시에는 비일비재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유대 땅에서의 첫 소식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목자들이 고용된 목자들인지, 아니면 그 양들의 주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사람이 아닌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목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마다의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목자로 서게될 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맡겨진 짐이 무겁다고, 또는 다른 생각으로 삯꾼처럼 그 양과 염소들을 내팽겨칠 수도, 잡아 먹을 수도, 팔아서 내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참 목자’가 되어서 그 작은 하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성탄절이 주님 앞에 나를 참 목자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설명

- 1 목자들의 들판 교회 - 베들레헴에 위치한 목자들의 들판 교회 마당에 있는 분수
- 2 목자들의 들판 동굴 예배처
- 3 목자들의 들판 동굴 - 목자들의 들판 이곳 저곳에는 이런 동굴들이 산재해 있다. 광야에 양을 치러 나간 목자들은 밤이되면 이런 자연동굴을 우리로 삼는다
- 4 유대광야의 베두인 - 양들이 우리로 돌아오고 있다.
- 5 막 태어난 새끼 양 - 태어나자마자 아직 일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략 태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어미 젖을 빨고 걷는다

이스라엘 <목자들의 들판 교회 - 베들레헴>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델라버트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땅지 최고의 여호안대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18

실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 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3,10)

그 표현의 방법은 제각기 다를지라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기들의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별반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가스실로 보내던 나치(Nazi) 군인들도 알고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기들의 아들 딸 또래의 유대인 아이들이 이 비극적인 전쟁, 그리고 독일이 겪었던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무런 상관없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그리 혹독하게 그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 몰았는지, 나치 군인들의 양심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낮에는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아이들을 입맞추고 돌보는 자상한 가장으로 살았던 나치 군인들의 양심은 무엇으로 만들어 졌을까요? 심리학에서 "동조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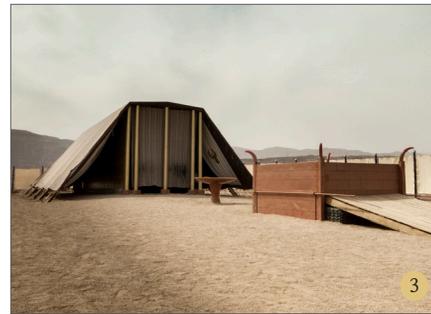
정답이 확실히 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선택한다면 자신도 그들에게 동조해서 오답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즉, 집단(군중) 속에서 양심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나의 일상의 태도가 변질되어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눈을 부릅뜨고 나를 철저하게 뜯어보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사무엘이 살았던 실로(Shiloh)는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주도로 회막을 세웠던 곳이 실로이고(수 18:1),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몇 백 년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였던 실로가 교육적으로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이런 비교육적 환경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두려워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삼상 2:29). 엘리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정해준 몫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손을 댔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의 것을 삼았습니다(삼상 2:13-17). 성(性)적으로도 타락을 하였습니다(삼상 2:22). 그런데 그쯤되면,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들이 무엇을 하든 방치해 버린 겁니다. 아예 신앙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무더진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회귀하여졌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와 대화하지 않으셨는데(삼상 3:1),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긴장

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홉니와 비느하스의 오만방자함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양 생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혈통으로는 엘리의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지라도, 사무엘은 마치 그 집의 식구와 마찬가지로,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고, 그들의 부정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옹고 그름을 가릴 것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홉니와 비느하스, 또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던 엘리 가정의 무질제한 틀 바꾸기에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 쉽게 살려면, 누군가로 부터 질투를 받지 않으려면, 그냥 그들처럼 살면 훨씬 편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하는데, 나 정도야..."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가 듣지 못했던, 날카로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삼상 3).

결국 엘리 집안의 타락이 곧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실로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그 전쟁 통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죽습니다. 엘리는 아들의 죽음 소식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로 실로는 역사 속에서 그런 곳이 있거나 싶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되어 버린 실로를 가리키며 역사 속에서 유다가 나아갈 길을 배우라고 했습니다(렘 7:12). 실로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또 다른 새 역사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해에 새 역사 쓰기를 기도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은 사무엘입니다.

사진설명

- 1 성소가 있었을 장소 - 실로는 완전히 폐허가 된 뒤로 성소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막의 크기를 기초로 그 만한 터를 추정해 보는데,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붉은 색의 넓은 공간이 유력한 장소 중의 하나이다.
- 2 폴란드 아우슈비츠 - 아우슈비츠의 아이들
- 3 출애굽기의 성막 -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크기와 모양의 성막이 건물의 형태로 실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스라엘 <실로>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편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19 하룻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삿 7:2)

이스라엘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이스라엘 골짜기의 남쪽 산지를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북쪽 산지를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썬 뿌리신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을 통해서 알아챌 수 있듯이 매우 풍요로운 땅입니다. 땅에서부터 물이 나는 샘이 그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을 ‘샘들의 골짜기’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그 중요성 또한 대단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 골짜기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곳에서 시스라와 싸웠고(삿 4:13-15),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여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했습니다.(삼상 31:2) 솔로몬은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 전략상 요충지인 이스라엘 골짜기의 므깃도에 병거성을 쌓았습니다.(왕상 9:15) 나봇의 포도원이 이 곳에 있었고요.(왕상 21:1) 예후의 반란 때에, 이스라엘왕 요람이 죽은 곳도 이 골짜기의 어딘가입니다.(왕하 9:24) 또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를 맞이해서 싸우다가 요시아가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왕하 23:29, 대하 35:20-35)

이 골짜기의 동남쪽에는 길보아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 자락 아래에는 많은 샘(오아시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 샘가에 기드온을 장수로 한 이스라엘 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삼만 이천명이었습니다.(삿 7:1-3) 불과 몇 킬로 앞에는 미디안과 가나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적군의 수는 적어도 십삼만 오천 명이었습니다.(삿 8:10) 다섯 배에 가까운 적군을 앞에 두고 기드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Judge)일 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적들에 비해서 턱없이 수가 부족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에 낙담할 만도 했을 텐데,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기드온과 다른 것인지, 오히려 모인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가 많다고 합니다. 일대 오(1:5)로 싸워서 전쟁을 이긴다면, 그야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용장(勇將)이자, 지장(智將)으로 기억될 정도인데도 말이지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외침에 무려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수가 일만 명이니, 이제는 일대 십삼(1:13)입니다. 열두 척의 배(혹자는 열세 척)로 일백 삼십삼 척의 왜군의 배를 격파한 것으로, 이순신 장군이 바다 전쟁 역사에 길이 남는 장군이 되었는데, 이보다도 더 큰 전력 차이의 난관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수도 많다고 하십니다. 정말 당

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만 명을 ‘시험’하십니다. 길보아산에 진을 쳤던 기드온과 군사들이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이 전쟁 하기에 준비된 이들인지를 관별하신 것입니다. 손에든 창과 방패를 내팽겨치고는 물에 뛰어들거나, 무릎을 꿇고 고개를 물 속에 처박고는 벌컥 벌컥 마시는 이들은 전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로지 움켜 입을 대고 활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병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물을 마셨는지는 성경의 묘사 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두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다면, 굳이 활아서 먹을 필요가 없지만, 한 손에 창이나 방패를 잡고 경계 태세를 유지한 채, 한 손으로 물을 떠 마신다면 활아 먹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늘 대비하는 자세를 가진 이들을 뽑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땅을 지키겠다는 열정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준비되어 있는 삶의 태도와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삼백 명일지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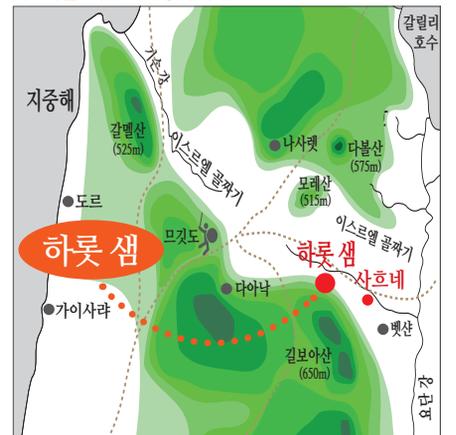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 10:10)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말로만 “그래 나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과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대에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말이지요. 기드온의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건대, 단지 “교회에 온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는 준비된 삶의 태도와 실천”입니다.

사진설명

- 1 길보아산에서 내려다 본 이스라엘 골짜기 -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의 동쪽편을 내려다 보면 저 멀리 길르앗 산지(현재 요르단)와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샘들이 내려다 보인다
- 2 하룻 샘 - 현재는 국립공원 ‘하룻 샘’으로 불리는 길보아 산자락 아래의 하룻 샘
- 3 사호네 - 현재는 국립공원 ‘간 하실로사’ 또는 ‘사호네’로 불리는 길보아 산자락 아래의 또 다른 샘. 국립공원 하룻 샘의 동쪽에 있다

이스라엘(하룻 샘) 성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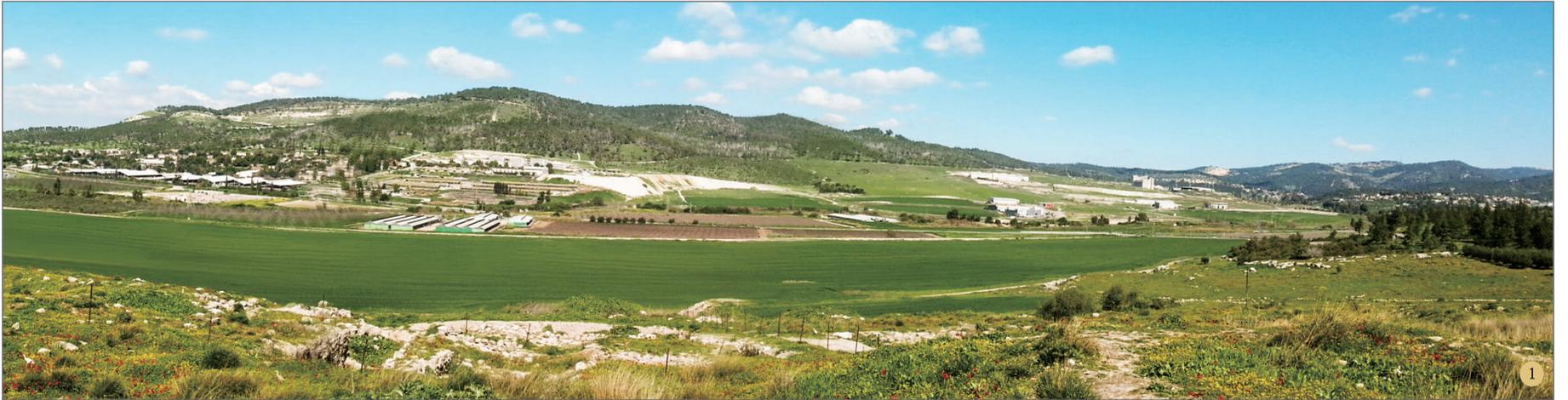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편지 최고와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20 벤세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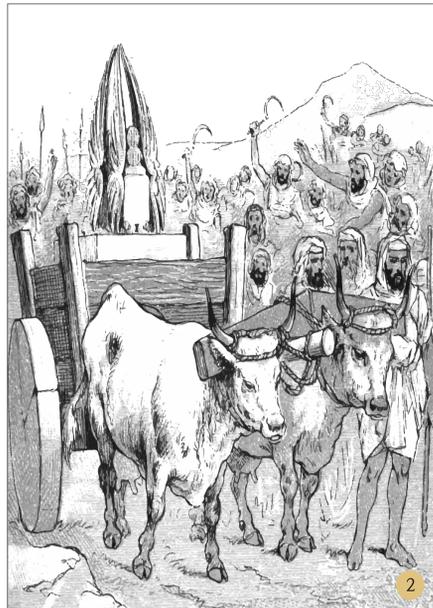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
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
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
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벤세메
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밭을 베다가
눈을 들어 켈을 보고 그 본 것을 기뻐
하더니”(삼상 6:12-13)**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는 하나님,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까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모두에게' 정말 복이고 즐거움일까요?

두 마리의 암소가 무언가를 신고서는 블레셋 평야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밭을 베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무언가 보려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수레에는 하나님의 켈이 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행복했을까요? 일곱 달 전에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법궤를 아무런 피흘림 없이 다시 찾았을 뿐 아니라(삼상 6:1), 거룩한 법궤가 자기 마을로 들어왔으니 말이지요. 울법에 따르면, 성막의 성소에서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만 법궤를 일년에 한번 속

죄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법궤를 보는 것이지, 그 법궤의 뚜껑인 그룹이 앉아 있는 속죄소는 볼 수 없었고, 법궤의 안쪽을 들여다 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레 16) 대제사장이나 볼 수 있는 법궤를 레위인도 아닌 벤세메스의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기쁨에 넘친 벤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패다가 장작을 만들고, 끌고온 암소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삼상 6:14)



그런데 그 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소로 드리는 번제라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

다. (레 1:3) 벤세메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좋은 것, 값어치 있는 것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수레를 끌고 올라온 암소들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거기다 벤세메스의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 더 벌였습니다. 법궤를 신고 온 수레 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의 수만큼 보낸 쥐모양의 금덩어리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는데, 아직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 않은 터라, 다른 이스라엘의 주민들에게 말하지만 않는다면 그 쥐모양의 금덩어리들은 벤세메스 사람들의 것이 되리라는 욕심에 또 다른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법궤 안에 그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으리라 기대감을 가지지는 않았을까요?

벤세메스의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법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벤세메스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 마을에 법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랴여아림 사람들에게 알리고 옮겨 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삼상 6:21)

임마누엘! 그 말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면, 그 삶은 복을 받고 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막연한 상상을 합니다. (삼하 6:11)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나(임마누엘) 그 분을 통해서 경제

적인 이익을 보려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벤세메스에서 다시 기억 해봅시다.

사진설명

- 1 벤세메스 - 소렉 골짜기(사진 왼쪽 산)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은 예루살렘 산지이다.
- 2 법궤를 신고 오는 두마리 암소 - 하나님의 법궤를 신고, 블레셋 평야에서 벤세메스로 오는 두마리 암소.
- 3 벤세메스 - 소렉 골짜기(사진 오른쪽 산)를 가운데 두고, 왼쪽은 블레셋 평야 방향

이스라엘 (벤세메스)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델라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편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21

엠마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눅 24:13-16)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몰라보다니요! 잠시 스쳐지나갔던 거리의 행인이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내가 응원한 팀이 지고나면 응원했던 사람들은 허탈하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스포츠에 일희일비하는 소견 좁은 사람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머릿속에서 패배의 기억은 사라집니다. 아니, 아예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지요.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보았으나, 부활한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예수에 목매어 살던 사람은 아니고...”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괜히 예수와 얽혀서 자기에게도 불똥이 튀까봐 모든 척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만에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열혈 추종자들이 만든 어딘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마는 부활의 소식 앞에서조차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겠노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요 20:24~29)

도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또 한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요. 그 중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합니다. (18절)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한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 요. ‘낯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으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했던 존경하는 선생님(랍비)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몰라보다니요!



엠마오의 교회 터에 걸터 앉아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참 불쌍해보였습니다. 그토록 그분의 ‘주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셨건만, 감히 ‘제자’라고 불리던 자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는 말과 일에 능했던 선지자였답니다!’(19절)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였으나, 예수님을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구약시대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 중의 하나로 여겼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들, 그가 불과 사흘 전에 돌아간 ‘그분, 예수님’이라고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달변이어서 율법학자나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절대로 지지 않고, 성경을기가 막히게 설명하며, 기적도 행하는 ‘유다 땅의 유명인사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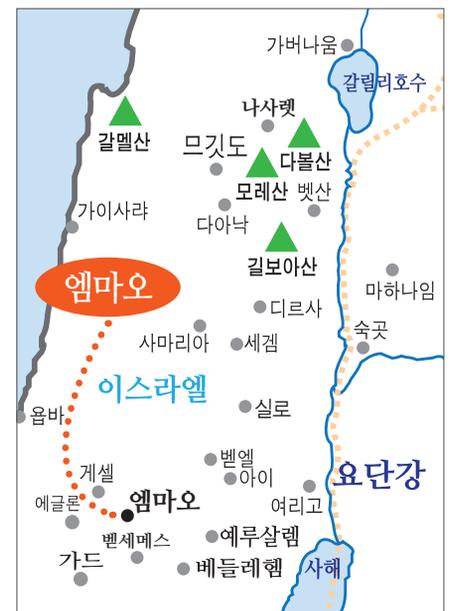
다. 그런 예수님과 남들보다 더 가까이 다닌다는 것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 보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신들이 바랐던 예수님의 상(21절)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셨던 믿음과 신앙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들의 무지함을 보면서, 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바로 ‘나’인가?” 하는 질문 때문에 말입니다.

사진설명

- 1.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들 -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는 도마만이 아니었다. 글로바라고 불리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역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 2. 엠마오(Emmaus Nicopolis) - 엠마오 지역에 있는 두개의 교회 중 하나.

이스라엘 <엠마오>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 (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편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22

쿰란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잠언 4:10)

쿰란에만 가면, 저는 꼭 그 생각이 납니다. 약혼식을 하러 한국에 가기 전, 학교 친구와 쿰란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과 함께 쿰란에서 성경 두루마리들이 발견된 동굴들을 일일이 다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즈음(쿰란의 공동체 신앙의 입장에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사해 바닷가의 유대광야에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야하드 공동체’라 불렀는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정결한 삶,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공동체 구성원 중에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서기관들이 필사한 성경 두루마리들이 1947년에 발견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쿰란을 방문하면, 옛 거주지의 흔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정결례를 하는 정결 욕조(미크베: Miqveh)와 정결례에 사용할 물을 공급하고 우기에 건천(Wadi)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의 방향을 돌려서 물저장고에 물을 대던 수로의 흔적을,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던 장소와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던 방, 필사한 문서를 보관하는 항아리들을 빛고 구워내던 가마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거주지는 야하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만든 마을은 아니고요.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공공건물들입니다. 정작 야하드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절벽 곳곳에 있는 동굴에서 주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對)로마 항쟁 중, 마을이 파괴되기 전에 두루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몇 개의 동굴로 두루마리를 옮겼고, 그 중 11개의 동굴이 발견된 거지요.

트래킹 하며 발로 그 동굴들을 밟아 보는 것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두루마리가 발견된 첫번째 동굴을 답사하고, 두번째 발견된 동굴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오르막인지라,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저는 좀 긴장되기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동굴에서 세번째로 발견된 동굴로 내

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쿰란의 동굴 답사를 이끄는 집사님이 워낙 모험심이 넘치는 분인지라, 길도 없는 절벽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뽀족 뽀족한 쿰란의 바위들은 장갑을 끼지 않으면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절벽에 얼마나 몸을 찰싹 붙였는지, 뽀족한 돌들에 온 몸이 쓸렸습니

그러다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절벽을 따라 내려가다가 빨을 뺀 매달려 가는 중, 발이 땅에 단지 않는 겁니다.

“모퉁이 송연해진다”라는 말이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먼저 내려간 친구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너무 태연하게 “이 전도사, 손을 놔”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놓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뒤는 완전 수직 절벽이기에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오르고, 좀 더 간절하게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결국 매달린 절벽에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는데요. 전혀 보태지 않고, 딱 10cm였습니다. 땅과 제 발이 떨어져 있었던 높이가요. 절벽에 매달려 절벽을 잡고 있는 손 끝만 보고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없었으니, 10cm인지 아닌지 누가 알았을까요? 딱 10cm 공중에 매달려서 떨리는

목소리로, 집사님과 친구를 부르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약혼식 겸, 양가 상견례 내내, 제 배의 수많은 상처들과 아물어가는 상처들의 따끔 따끔한 고통이 알려준 교훈은 ‘벼랑끝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손을 꼭 움켜잡아야 할지, 아니면 놓아야 할지는 주님이 알려주시고, 저는 그저 그분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며, 용기를 내어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절벽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사진설명

- 1 쿰란의 절벽과 야하드 공동체의 공공 건물 -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사해와 맞닿은 유대 광야의 절벽에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에서 살았다. 그러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식이나 식사 시간에 함께 모이는 마을로 내려갔다. 사진에 보이는 절벽이 쿰란 공동체가 살던 절벽이고, 사진 오른쪽의 건물 유적이 공동체를 위한 모임 공간이다.
- 2 두루마리를 보관하던 항아리들 - 공동체 안에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비롯한 각종 문서들을 필사하고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두루마리를 쓰고 나면, 두루마리를 담는 항아리에 보관하여 선반 위에 올려 놓는다.
- 3 쿰란 공동체 건물 평면도
- 4 주거동굴 - 야하드 공동체가 살았던 동굴 중의 하나.

이스라엘 <쿰란>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편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23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
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
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행 10:1-2)**

헤롯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인공항구인 가이사라는 로마가 직접 파견한 유대아(Iudaea)의 총독들이 머무는 국제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us), 벨릭스(Felix, 행 23:12-35), 베스도(Festus, 행 25:1-26:32) 총독들 모두가 이곳에서 근무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유대아 지역에서 지중해의 로마 각지로 가는 관문 도시의 역할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Cornelius)는 바로 이 도시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영향력을 끼치는 코넬리(Cornelii) 가문(이름의 중간에 들어가면, 코넬리우스 Cornelius로 그 형태가 바뀌고, 우리말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번역되었다.)은 로마시대의 공화정에서 중요

한 축을 담당했던 집안이었습니다. 로마제국의 수많은 집정관들을 배출해 내던 명문가였거든요. 로마 공화정 당시에 전체 집정관 수의 30%가 코넬리 집안이었으니, 그야말로 세도가라 할 수 있겠지요. 코넬리라는 영광스러운 가문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으니,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는 그 세도가의 일원이었을 겁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문의 고넬료는 순혈의 로마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포부메노스 톤 테온” φοβούμενος τὸν Θεὸν 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개종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근무했던 가이사라에 사는 유대인들과 구약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기도생활까지 해나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앙을 가진지 오래되었더라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생활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결단이 필요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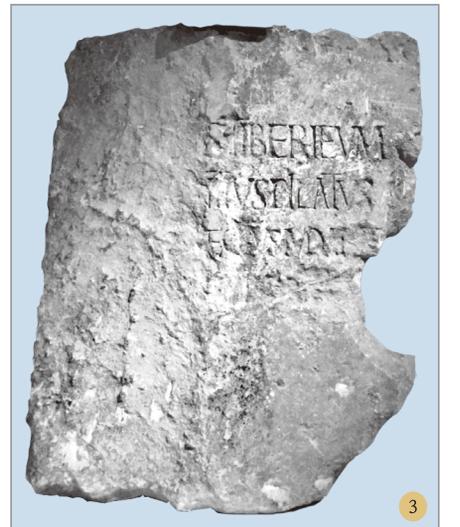
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고넬료는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이 그러하듯, 철학 사조로서 “신”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어찌보면 지배자의 입장에서 혹독하게 다루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피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환상 중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대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가 오는 즈음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집에 초청해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함께한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	기간
Coponius	6-9
Marcus Ambivulus	9-12
Annius Rufus	12-15
Valerius Gratus	15-26
Pontius Pilatus	26-36
Marcellus	36-37
Marullus	37-41
총독 파견하지 않음	41-44
Cuspius Fadius	44-46
Tiberius Julius Alexander	47-48
Ventidius Cumanus	48-52
Marcus Antonius Felix	52-60
Porcius Festus	60-62
Luceius Albinus	62-64
Gessius Florus	64-66
Marcus Antonius Julianus	66-70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아 Iudaea의 총독 명단

그러나 그저 고넬료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홀로 듣지 않고 많은 이들과 함께 듣고자 하는 공활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고넬료의 신실한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더 강력해 졌습니다. 그 복음을 들던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앞에 불현듯 나타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먼저인 것은 내가 먼저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삶으로 말입니다. 고넬료처럼.

*집정관 : 고대 로마 왕정이 무너지기 이후, 왕 1명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 체제인 로마 공화정 당시, 행정 최고 책임자로 매년 2명의 집정관이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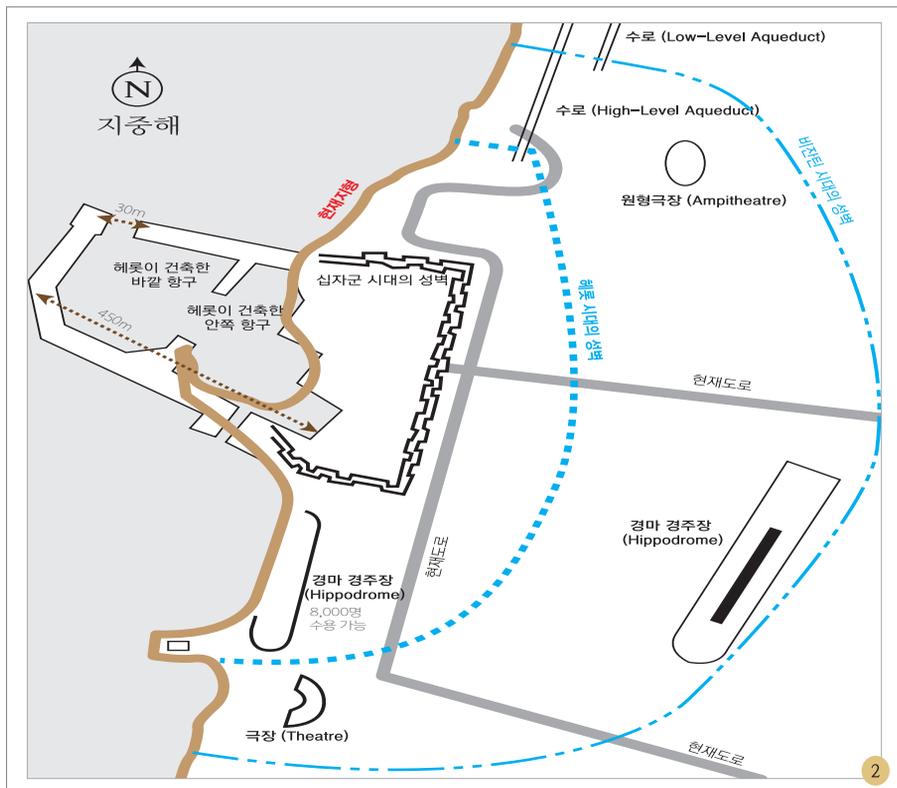
사진설명

- 1 가이사라 항구
- 2 가이사라 항구 세부 지도
- 3 본디오 빌라도 비문 - 가이사라에서 발견된 본디오 빌라도 비문에는 가이사라에서 티베리우스 Tiberius 황제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 Pontius Pilatus 가 근무했다는 것이 적혀있다.

이스라엘 (가이사라)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24

히스기야의 성벽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렘 23:33-40)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마음껏 제 인생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선 앞에서는 한번 움찔하기도 했고, 살짝 그 선 넘어 발을 밀어 보기도 하고, 그 선 앞에서 뒤돌아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당장에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일들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남들처럼 놀고 싶고, 남들처럼 먹고 싶고, 남들처럼 슬쩍 눈감고 내 신앙의 울타리로부터 잠시 마실 갔다 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비록 제가 목회자이지만, 아직도 덜 영근 풋사와 같은 아직 연약한 사람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나를 다그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은 그야말로 '짐'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을 좀 보시라고요!"

시드기야 왕 때 유다의 왕과 제사장, 고위 관료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눈엣가시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 그들에게 복과 은혜,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지는 못할 망정,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늘 '죄'와 '회개'를 외치대니 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이 있습니다."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탐욕과 죄가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리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백성들은 시큰둥했습니다.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쫓겨난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라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이고 권위 있는 제사장 바스홀과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바스홀과 스바냐, 그리고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평화의 메시지, 외적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무겁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에만 열심이었던 거지요. 제사장들과 예언자를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시장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아이구 저 세상 물질 모르고 시류를 모르는 답답한 인간이 또 뭘 소리를 하려나?" 했을 겁니다. 유다의 사람들은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퇴물 제사장 집안 출신 예언자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그래 또 무슨 짐스럽고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나?"라고 비꼬며 조롱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과 부담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짐'으로, 그리고 '부담'으로 생각하신다는 생각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선대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두께 6미터의 육중한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너져 기초만 남은 성벽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겼던 내 삶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끼워 맞추어 짐을 털어내고 부담을 없애려고 했던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했던 철없던 전도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렘 23:33-40)



- 이슬람 구역 Muslim Quarter**
 - ▲ 베데스다
 - 예케호모교회
 - 오스트리아 호스피스
 - ★ 고난의 길
 - ① 사형선고를 받으신
 - ② 십자가를 지신
 - ③ 처형으로 쓰러지신
 - ④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 ⑤ 시몬과 십자가를 지
 - ⑥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 드림
- 기독교 구역 Christian Quarter**
 - 성모교회 (골고다)
 - 구원자의 교회
 - ⑦ 두번째로 쓰러지신
 - ⑧ 여인들을 위로하심
 - ⑨ 세번째로 쓰러지신
 - ⑩ 세바스티안의 옷을 벗김
 - ⑪ 못박음
 - ⑫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 ⑬ 세마포에 쌓이심
 - ⑭ 무덤에 들어심
- 유대인 구역 Jewish Quarter**
 - ① 후르바 회당 Hurva Synagogue
 - ② 히스기야 성벽 Broad Wall
 - ③ 후르바 광장 Hurva Square
 - ④ 울고 고백 박물관 Wohl Archaeological Museum
 - ⑤ 불탄 집 Burnt House
 - ⑥ 카르도 Cardo
 - ⑦ 카르도 기념물 상가
 - ⑧ 성전산 출입구
 - ⑨ 동쪽의 벽 지하터널 입구 Western Tunnel
 - ⑩ 동쪽의 벽
 - ⑪ 예루살렘 고고학 공원 Jerusalem Archaeological Park
- 아르메니아 구역 Armenian Quarter**
 - Christ Church
 - Tower of David

사진설명

- 1 히스기야의 성벽 -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1차 성전 시대의 성벽은 바빌론의 침공과 함께 무너졌다. 현재는 예루살렘성 유대인 구역에서 성벽 북쪽의 흔적 일부를 볼 수 있다.
- 2 예루살렘 성 지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야기 25

베다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
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돌
려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
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
이다. “나사로야 나오라”(요 11:41~43)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
다만, 예수님께서 별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
고는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요 11:7)고 말씀
합니다. 유대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대
적인 마음을 품고 생명을 위협해서 예수님은
잠시 유대 땅을 벗어나 계셨는데, 그보다 더 중
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
거든요.
나사로는 누이들인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베
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건너 동편이고(요
1:28), 또 다른 한 곳은 감람산 자락에 있지요.

나사로가 살던 곳은 감람산 자락의 베다니입
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300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에 부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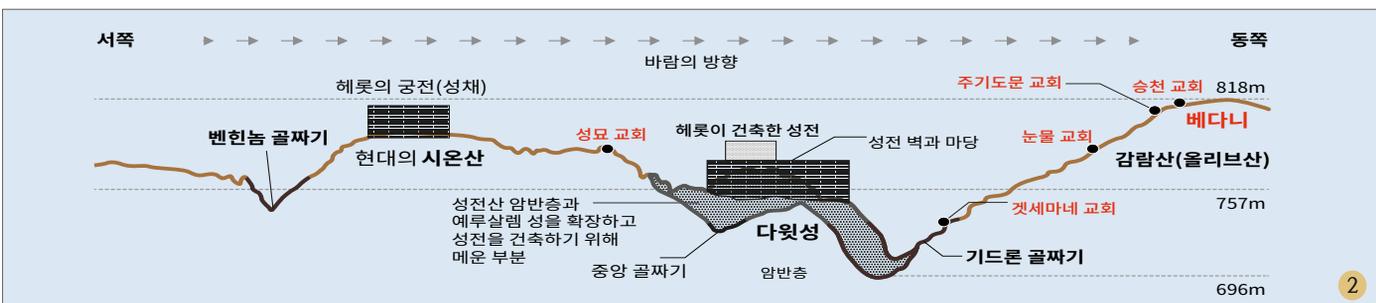
하지만 베다니는 그리 부요한 동네는 아니었
을 겁니다. 부요한 사람들은 성벽으로 둘러싸
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이 자신들의 안
전을 보장 받는데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베다니에 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요하지 않은 환경에서
그들보다 부요한 사람들조차 부담스러운 큰
가격의 옥합을 베다니에 살던 여인이 가져왔
다는 것, 그리고 그 옥합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
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자기 헌신이었
을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벌어진 일인데요. 유대

교 랍비들의 성경 해석인 미드라쉬에서는 문
둥병이 바람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
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 반경 4규빗 이내
로 지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었고, 특히 이스라
엘은 지중해 쪽에서(서쪽) 바람이 불어오기 때
문에 문둥병 환자의 동쪽으로 지나쳐 걸어가
는 초차 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문둥병 환자가
발생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염되
지 않도록 이들을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베
다니, 또는 베다니의 주변으로 옮기도록 조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비해 그리 정결한
마을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 나사로가 살았
던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실 만큼 지극히 사랑
하셨던 나사로가 살았던 것은 우연은 아닐 겁
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

마가 즉각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을 독려했습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죽으려
갑시다.” 이게 무슨 생똥 맞은 말이람니까? 지
금 예수님은 ‘살리려’ 가시고자 하시는데, ‘죽으
려’ 가자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
운데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대화는 끊이여
또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
흘 만에 도착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
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
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급하게 뛰어 나왔습니
다.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
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
르다가 즉각 응답했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날 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겠다는 말이
었는데!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두고 예수님, 도
마, 마르다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대화했
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리는 것’에, 도마는
신념과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
감한 죽음’에, 마르다는 ‘종말의 신앙’으로 나사
로의 죽음을 바라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눈들
이 보는 세상은 모두가 다릅니다. 만약 세상이
천 개의 눈이 있다면, 그 천 개의 눈이 보는 세
상은 같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나사
로의 죽음을 두고서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그
것을 바라보며 각자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
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지도 모릅
니다.

신앙없는 사람들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
피 우시는 예수님을 보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
냐?”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도마와 마르다는 나를
대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표현이 맞다 틀리다는 예수님께서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
건대 나의 신앙, 그리고 옳다고 여기는 나의 생
각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와 항상 일치하
지는 않은가 봅니다.
도마와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오히려
그것을 뛰어 넘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
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그의 무덤 앞
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님께서 분명히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
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대
로 신앙이 있다고 하나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
는 곳과는 다른 곳을 향하여 눈길을 주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좀 안다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은 아니었을까요?



사진설명
1 나사로의 무덤
2 예루살렘과 감람산의 동서 단면도 -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는 쪽이며, 동쪽의 감람산 정상에 베다니
마을 너머에는 유대 광야가 있다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야기 26

욥바 - 시몬의 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행 10:15)

레위기에는 매우 자세하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잘 정리되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200~2,300여년 전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정결과 부정함을 나누어 놓은 레위기의 목록이 예수님 시대의 삶을 모두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경에 능통한 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랍비들이 첨가하여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마 15:2, 막 7:3, 5) 이 성경의 율법만큼 사람들의 삶을 틀에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마치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율법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름'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계속 떠올리는 것이지요. 율법을 엄중히 지키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준수 여부를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회개를 하

고, 정결례를 거쳐 부정한 몸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그 사람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지 등을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율법(이것을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보다 더 세밀하게 계속 보완해서 추가해 놓은 유대인들의 전통(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구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다 손가락질 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신앙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스스로 '악'이 되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지만,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던 베드로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자

신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유대인들은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 "복음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받을 만하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하기에 그 기쁜 소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리 성령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사고와 신념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령 임재의 체험이 곧 그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닌가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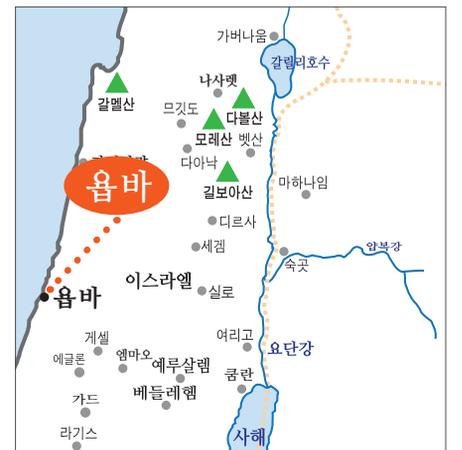
성령을 받은 후, 자타 공인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내고는 믿음의 동역자인 시몬의 집에 머무른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시몬의 집 윗층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생물을) 잡아먹으라." 세 번이나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그 꿈(황홀경)에서 깨어나서도 여전히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지요.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베드로가 역설적으로도 이방인에게 처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거지요. 그날 베드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서 있자니, 나를 향해야 할 신앙의 날카로운 기준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서 그 칼로 그들을 자르고 베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을 내 믿음과 신앙이 작은 그릇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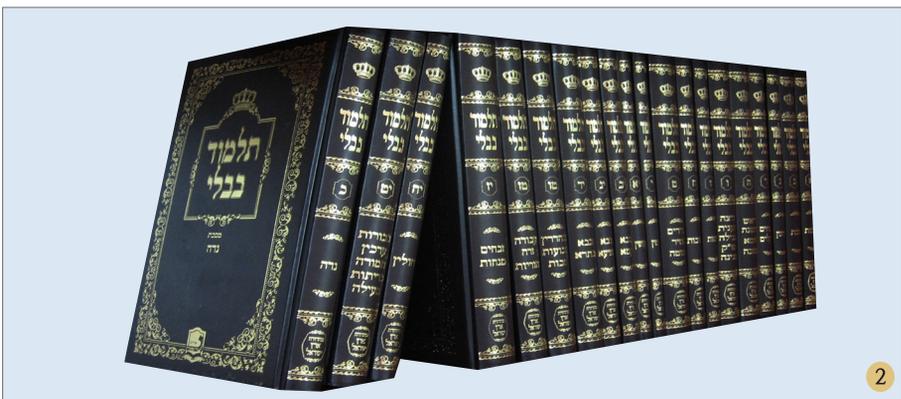
사진설명

- 1 시몬의 집(현재 모습)
- 2 탈무드(바벨론 탈무드) - 구약성경을 기준으로하여 그 율법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후대의 율법 학자들이 설명을 해 놓은 해설서인 구전 율법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하는지,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리해 놓았다.
- 3 시몬의 집 - 찍은 연대는 알 수 없으나 Edward J. Lenkin이 촬영해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기증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스라엘 <욥바>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야기 27

느헤미야의 성벽



15.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16. 우리의 모든 대 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느 6:15-16)

건축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원래의 계획대로, 그리고 원래의 공사 기한대로 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이 서로 맞지 않아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공사가 멈추어 서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금이 부족해서 치루어야 할 공사비를 늦게 지급해 잠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설계를 바꾸자는 의견 때문에 공사가 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사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 공사는 아마도 책에나 있을 법한 메뉴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통념에서 가장 예외적인 공사를 손꼽으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공사를 꼽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했을 지라도 늘 변수는 있게 마련입니다. 445 BCE에 느헤미

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속주가 된 유다의 통치자로 오기는 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위협이라는 상상지도 못했을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에서는 마주하리라 상상하기 어려운 걸림돌이지요.

공사하기도 바쁜 와중에 일꾼의 절반은 창을 잡고 경계를 서야 했고, 밤에는 파수를 봐야 했습니다. 낮에 일하는 이들도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느 4)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유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역량의 100%를 다 쏟아 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121,405㎡(대략 37,000평)의 성을 두르는 성벽을 52일만에 세웠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느 6:15) 설계자가 그린 설계도와 그 설계도 대로 일을 맡은 이들이 진행하는 공사에 잡음 없이, 그리고 의견의 충돌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자기의 집도 짓지 않고 텐트에 머문 채, 무리의 절반은 창을 잡고 보초를 서고, 무리의 절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돌을 나르던 그때를 상상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가슴뭉클하지 않나요? 내 것을 먼저 남겨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떼어 놓는 오늘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기적과 같은 공사를 가능하게 하였던 밑거름이었습니다.

2007년에 에일랏 마잘(Eilat Mazar) 이 다윗성으로 추정되는 곳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궁전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을 하게 되지요. 다윗 성터 위에 5미터 두께, 그리고 30미터 길이의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기 전의 웅장한 예루살렘 성(667,731㎡)을 모두 완벽하게 복원하기란 재원이나 시간 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돌아온 백성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작은 방어성을 건축한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경사가 매우 급하고 공사를 하기 어려운 성의 동쪽 편 기드론 골짜기 부분은 경사면이 아니라 그 보다 위쪽에 비교적 공사가 용이한 지역에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발견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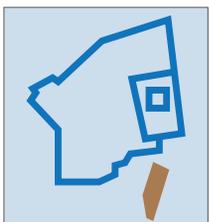
성벽 공사가 끝나고 다들 한 자리에 모인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짐작하기로 가장 감격하고, 가슴이 뛰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였을 겁니다. 얼마전 성벽 공사를 하기 전, 그 어두운 밤에 홀로 무너진 성벽을 돌면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의 성벽을 상상했을 겁니다. 무너진 돌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썬주세요"라고 기도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진 것은 돌로 쌓은 성벽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완공이 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무릎하얏을 느헤미야의 마음을 오롯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루어 냈던 성벽 재건 공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서 있다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 정도는 52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설명

1. 느헤미야의 성벽 - 컬러로 강조된 부분이 2007년에 발견된 느헤미야의 성벽이다. 가로 30미터 두께 5미터의 느헤미야 성벽은 흑백 부분의 다윗 시대(10세기) 건물들을 다 포함하지 못했다. 위쪽의 급경사 지역이므로, 공사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예루살렘 성의 변천사 - 다윗이 여부스 족의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래로, 예루살렘은 그 모습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였다. 구약 시대에 가장 큰 규모의 예루살렘 성을 수축한 때는 히스기야 시대이며, 이 시대에 성 안에 수원지인 기온 샘에서 실로암으로 흐르는 물길 공사도 이루어 졌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은 솔로몬 시대보다도 작은 성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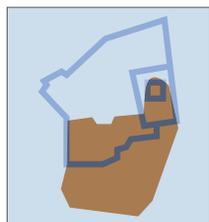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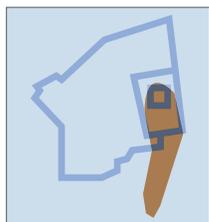
여부스 / 다윗 (1,000 BCE)
면적 : 40,468㎡
인구 : 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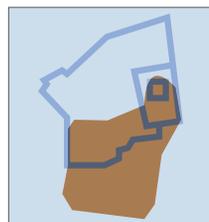
솔로몬 (930 BCE)
면적 : 129,500㎡
인구 : 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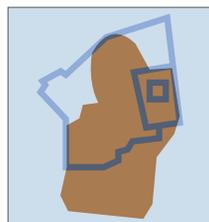
히스기야 (701 BCE)
면적 : 505,857㎡
인구 : 2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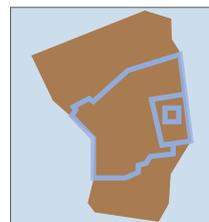
느헤미야 / 에스라 (333 BCE)
면적 : 121,405㎡
인구 : 4,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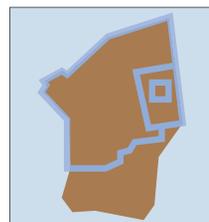
하스모니아 왕조 (기원전 2세기)
면적 : 667,731㎡
인구 : 30,000~35,000명



헤롯 (4 BCE)
면적 : 930,777㎡
인구 : 40,000명



예루살렘 멸망 직전 (66 CE)
면적 : 1,821,085㎡
인구 : 80,000명



비잔틴 시대 (565 CE)
면적 : 1,214,057㎡
인구 : 55,000~60,000명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28

그리스도의 식탁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 21:12-13)

저라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요 1:36)이라고 따르던 예수님, 그리고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신 예수님. (요 5:19-29) 제자들은 그 분이 부활과 생명 되신다는 것을 이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 11:25-26)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뱃일을 합니다.

영화 같지요? 고기 잡이를 하고, 그물을 고치던 이들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며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카메라가 다시 호숫가로 돌아가서는 마치 과거의 일이 꿈이었던 듯, 수고하며 아무런 지 않게 뱃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세요.

저라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조용한 새벽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뭘 좀 잡았냐?”고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배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갈릴리 호수로 발로 차서 밀어내 버리고서는 “삼일도 기다리지 못하느냐? 왜 내 부활의 소식을 전하던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여기 와서 뱃일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호숫가

로 찾아와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처럼 헛손질 하던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뒤, 허당 치던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일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말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한 채,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예수님과 만나기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아침식사를 준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처음입니다. 살아 생전 공생애 기간에 단 한 번도 손수 식사를 준비해주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고, 꿩

은 가마솥에 들어가야 했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잡혀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살아 돌아와서는 기독교 공동체와 관계를 끊어야 했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오늘처럼 이사가 자유롭지 않던 과거에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과 죽음을 무릎 쓰고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장과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일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배반했던 이들은 창피함과 미안함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를 회피했고, 교회 공동체는 배반한 이들을 배교자, 또는 변절자라고 손가락질 했을 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런 초대교회의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식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한 채, 과거에는 제자였으나, 이제는 제자는커녕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 양,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는 이들을 찾아와서는 마치 처음처럼 그들을 부르시고, 더군다나 식사까지

준비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용서와 사랑, 그 용서와 사랑이 그들과 나를 용서해주셨고, 과거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그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형제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나무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것, 심지어는 나를 배반한 이들에게까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시는 식탁(Mensa Christi)의 참 뜻이 아닐까 합니다. 갑자기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기꺼이 맞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묘하게 교차됩니다.

사진설명

- 1 베드로 수위권 교회 - 순례객들에게 베드로 수위권 교회로 알려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식탁'이라 불리는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북쪽의 부둣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 2 그리스도의 식탁 위에 세워진 예배당 - 이 예배당은 십자군 전쟁 시대(1263년)에 파괴된 비잔틴 시대(기원후 4세기)의 교회 터 위에 1933년 새로 세워진 예배당이다. 현재는 프란치스칸 수도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스라엘 <베드로 수위권 교회>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현지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29

승천교회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
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
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서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과 여찌하
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
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
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
니라 (행 1:9-11)

유학생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역시 운동입니다. 매일같이 책상머리에 붙어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어 시간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지 모릅니다. 그 날도 다른 학생들과 안식일을 앞두고 히브리대학교 스포츠 센터에서 테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쪽 하늘에서 검은 먹구름이 마치 제 머리를 때릴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하던 4명이 급히 가방을 챙기고 일제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있는 건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이미 비는 쏟아지기 시작했고, 불과 몇 초 사이에 온 몸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몸이 젖어버렸다는 생각보다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가의 가이사라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왔습니다. 흐리고 습한 날씨에 오히려 그 바람이 시원하다고 느낄 무렵 바람이 카페의 햇빛 가리개를 날릴 정도로 순식간

에 바뀌더니, 바람과 함께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듯 비가 내리는데, 의자에서 카페 실내까지 대략 3미터 정도의 거리를 달려 피하는 도중에 이미 비맞은 생쥐 마냥 다 젖어 버렸습니다. 빗물이 카페 창문을 때리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나무들은 금새라도 뽑혀나갈 듯했고, 이미 햇빛 가리개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오시겠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승천하신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행 1:9-11)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계 1:7)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은 늘 하얀 구름을 타고 팔을 벌리고 오시더라고요. 주변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있고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의 개선 행렬과도 같은 그림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흠뻑 비를 맞으며 든 제 생각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성화에서 그려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또는 구름에 가리워져서 오실 때에는 성화처럼, 또 영화처럼

쏟아지는 눈부신 빛 사이로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몰려왔던 그 먹구름처럼 미처 우리가 피할 사이 없이 갑작스럽게 오시지 않을까요?

승천교회 마당에 서서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제게 무엇을 물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기사 주님 마음이니 그 질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에 따라서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령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범정에선 증인이 거짓을 말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짓없이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제게 있는데, “사사로운 이익을 바라지 않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며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서슬퍼런 질문이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제 머리 위로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에 세워진 처음 교회는 천정이 없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올라가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구름처럼 우리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천정 없는 예배당, 지붕 없는 예배당에서 보는 하늘의 참된 뜻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사진설명

- 1 **텔아비브 항구로 들이닥치는 먹구름** - 바람과 함께 달려오는 먹구름이 비를 뿌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복음서가 유다의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면, 구름타고 오시는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닐까.
- 2 **승천교회** -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감람산의 한 동굴에서 모여서 함께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 동굴은 현재 주기도문교회(Pater Noster)의 동굴이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공개적인 예배가 허락되자, 현재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390년에 Pater Noster를 비롯한 현재의 장소에 비잔틴 형식의 교회가 건축되었으나, 614년에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680년에 다시 교회가 건축이 되면서 지붕이 없는 팔각형의 예배당이 되었으며, 건물 위의 ‘돔’은 십자군이 폐퇴한 뒤 이슬람 사람들이 모스크로 만들기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이다.
- 3 **승천교회 내부** - 1188년에는 십자군 시대의 벽에 돌을 얹은 후, 메카를 향하는 미흐라브를 추가하여 모스크로 만들어 버렸다. 바닥에는 ‘승천바위’가 있는데, 승천하실 때의 예수님의 오른발의 발바닥이라고 중세 이후로 기념하고 있다. 왼쪽 발바닥의 흔적은 떠서 현재의 알-악사 모스크에 있다.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30

나인성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눅 7:13)

사람과 동물 모두 ‘공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즐거워하면 함께 그 기쁨을 느끼는 감정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되고,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큰 사건이 벌어진 후의 ‘동정’은 있을지언정, ‘공감’의 좋은 예를 찾아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대략 16km 떨어진 모레산 북쪽 자락의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사렛과 나인이 가까운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종종 가시던 전도 지역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때마침,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 해 너머가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미루어보건데, 그 아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던 바로 그날에 죽었을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고대 사회에서 대개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약자들에 속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에 쓰여진 우르-남무(Ur-Nammu) 법전과 3,700년 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Hammurabi) 법전에서는 국가의 법으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르-남무 법전보다도 대략 400년 먼저 기록된 우르(Ur)의 라가쉬(Lagash) 왕의 명령(기원전 약 2,400년)에도 힘을 가진 이들이 고아와 과부를 불공정하게 대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인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보호해줄 아버지

없는 어린 아이들의 처지는 아마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유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나 질병 때문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가벼운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가 아들에게 온전히 상속되기 이전의 미성년의 아이는 특별한 보호자(고엘)가 필요했지만, 가까운 친족이 모두 고엘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엘이 랍시고 보호자를 자칭하다가 재산만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과부와 고아의 유산을 잘 지켜주어야한다는 명령을 도덕률이 아니라 민사/형사 법률로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유대 공동체에서도 가장 하위 계층의 사람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들의 처지는 더 암울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연으로 과부가 되었는지, 그 아들의 나이는 얼마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오로지 의지할 사람은 바로 그 아들 하나였을 겁니다.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과부의 울

음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초면 혹은 구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의 애절한 울음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는 죽은 이가 누워 있는 관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부정하게 되면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물건이 부정하게 되기에, 다시 정결해지는 순간까지 철저히 주변 사람들과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시신을 만질 경우,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닌 이름 모를 여인의 아들의 관을 만지면서 꺾을 수 있는 불편과 부정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관에 손을 올린 예수님의 마음에는 도움이 절실했던 그 여인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기원후 4세기에 처음으로 나인에 순례를 온 기록은 있지만, 언제 이곳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880년에 프란치스칸 수사들이 무슬림 마을이었던 나인에 과거 교회가 있었던 터를 구입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마을에 살던 모든 무슬림들이 교회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인에 가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교회 문의 열쇠를 무슬림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열어주었습니다. 교회와 모스크가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것도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은 공소가 되어서 다불산의 신부님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만 잠시 문을 여는 나인 성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픔처럼 슬퍼하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진설명

- 1 나인성의 교회 - 1880년에 세워진 나인성의 교회는 지금 프란치스칸 수도회의 공소로 사용되고 있다.
- 2 나인성 교회의 내부 - 2006년에 이 사진을 찍을 당시만해도,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 건물 옆에 살고 있던 무슬림 가족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었다. 당시에는 나인에 기독교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제는 교인이 생겼는지, 공소로 사용되며, 교회는 주일에 한 번 다불산에서 오는 프란치스칸 사제가 예배드릴 때에만 열린다. 공소가 되는 바람에 교회는 더 잘 정리가 되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보는 것은 어려워져 버렸다. 교회의 정면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애절하게 호소하는 어머니와 죽은 이를 감싸는 세마포에서 일어나는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이스라엘 <나인성>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야기 31

다불산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 17:1-2)

다른 산들과는 그 모양이 눈에 띄게 다른 산 하나가 이스라엘 끝까지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 산은 스블론과 잇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고(신 33:18-19), 성경 밖에서도 이 산은 거룩한 산으로 제의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산에는 두 개의 성경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대략 3,200년 전에는 이 산 위에 드보라와 바락이 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더불어 시스라와 한 판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으로 전쟁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요. (삿4) 신약시대, 예수님의 때에는 그 모습이 변하셨던, 변화산의 이야기가 이 곳에서 펼쳐집니다. (마 17:1-8)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대동하였던 것처럼(출 24:9),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산을 오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출 34:29-30)

제자들의 마음에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레, 번개와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구름 덮인 다불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제자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과 같이 다불산이 하나님과 만나는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라면, 얼마나 그 산에 살고 싶을까요? 그 산에 산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급히 말하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 17:4)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마치 헛발질하는 말처럼 들리는 하지만, 아마 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졸라댔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동행한다고 하시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천국과 같은 상황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을 것 같고, 실재라면 당연히 베드로가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합니다.

산을 내려올 때의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있지는 간청을 외면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길이 머쓱하기도 하고, 거절 당했다는 마음에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길에 산 아래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내려왔다면, 정말 싫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그곳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더 가지려는 다름도 없고, 더 존경을 얻으려는 시기도 없습니다. 남들

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력, 권력, 학력으로 나를 인급 나름하지 않는 그곳, 그분들과 함께 있는 그 산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나누는 말씀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맑아질 것 같고, 주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직접 묻고 답하면 되는 그곳이야말로 베드로가 살고 싶은 곳이고, 내가 살고 싶은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때로는 우리 신앙이 교회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만 한번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는 교회에서는 다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교회를 벗어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교회를 나서면,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을 철저히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과의 일체의 접촉마저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가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는 곳은 시내산 아래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는 그곳 말이지요. 그 시내산과 같은 다불산에서 직접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모세와 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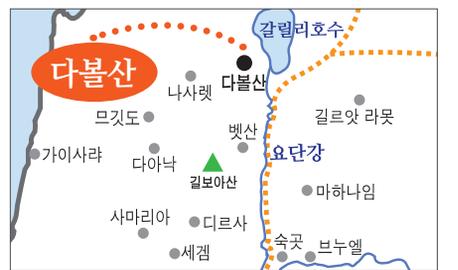
야를 만났다면, 그 감각과 흥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곳은 다불산 아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꺾박하는 이들이 즐비한 그곳 말이지요.

그리고보면 믿음의 확신은 그 분과 동행함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과 신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내 삶으로 확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산에 내려올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분을 증거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사진설명

- 1 다불산 - 이스라엘 평원에서 바라본 다불산의 모습이다. 마치 저 구름 사이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듯하다.
- 2 변화산 수도원 (예배당) 전경
- 3 변화산 수도원 - 비잔틴-십자군 시대에 세워진 교회터 위에 1924년에 플라친스칸 수도회에서 다시 세운 이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그 때 베드로의 요청대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지은 듯, 가운데 중앙은 예수님을 위해, 사진의 왼쪽 탑은 모세를 위해서, 오른쪽 탑은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진 예배당이다.

이스라엘 <다불산> 성지 위치도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십자군 시대 교회 터

변화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공간이 있는 앱스 (apse)

모세를 위한 예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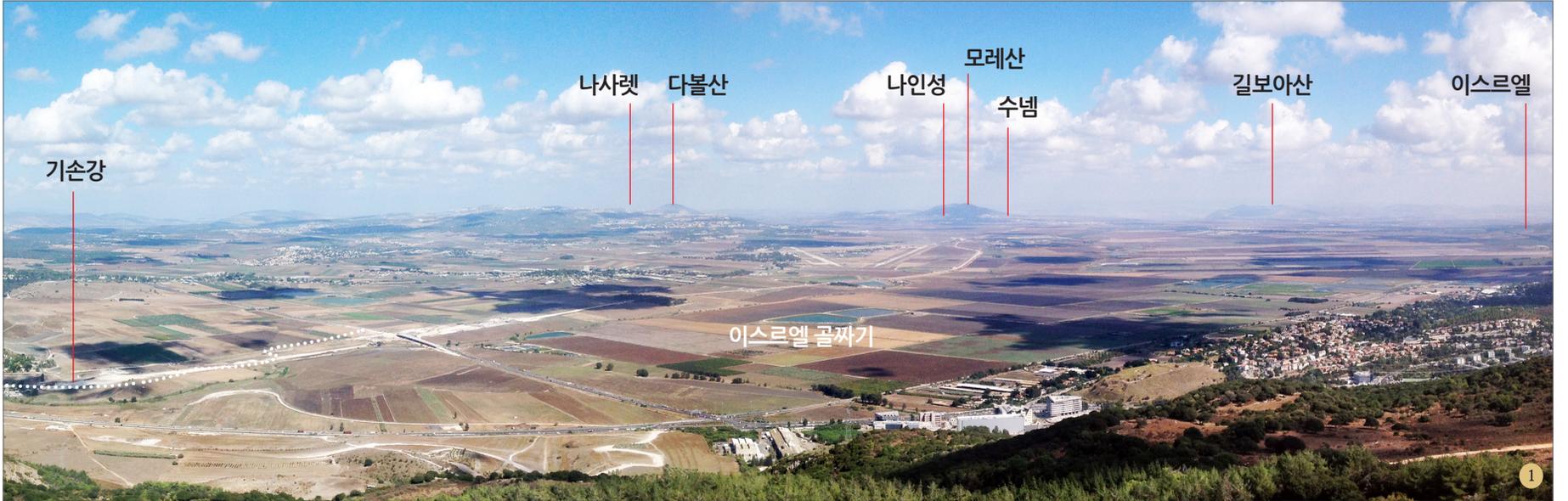
3번 사진 모습



이스라엘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야기 32

갈멜산



이에 여호와와 그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환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라 하니 (왕상 18:38-39)

고대 사회에서 이웃 나라의 왕을 섬길 때, “내가 당신을 섬기는 신하 나라, 신하인 백성입니다.” 라는 표현의 방법은 섬기려는 나라의 신을 위한 신전을 자기 땅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전에는 자기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무개 신과 더불어 주군(主君)으로 섬기는 이웃 나라의 신이 나란히 있거나, 주군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의 신보다 더 뛰어난 신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신전을 짓지 않는다면, 자기 나라의 신전에 주군 나라의 신상을 세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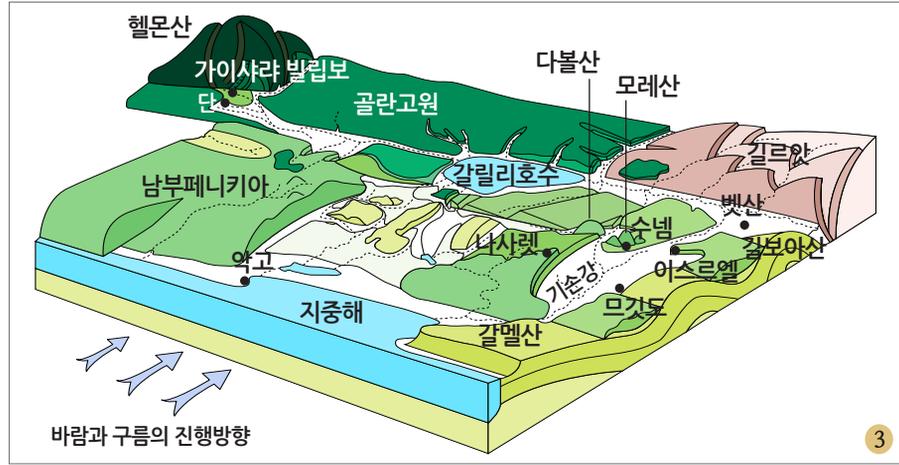
아합이 시돈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세벨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기 보다는, 이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의 성격이었습니다. 시돈은 도시 국가 연합인 페니키아 왕국의 도시 중의 하나로 해상 무역과 뛰어난 해상 군사력으로 지중해 세계를 호령하였습니다. 지중해변 동쪽 끝의 도시국가 연합체인 페니키아가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이르는 거대한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휘어 잡았으니, 페니키아의 남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왕국에 끼쳤을 경제, 군사적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페니키아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으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고, 페니키아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홀홀단신으로 시집을 리는 만무하지요. 이세벨은 시돈에서 자기를 섬기던 신하들과 종들을 대동하고, 거기에 신하된 나라 이스라엘에 정당하게 주된 나라의 신 바알을 따르는 신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옛바알”인데, 그 이름의 뜻은 “그와 함께 하는 이는 바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 아니라, “임마누바알” (바알이 우리와 함

께 있다)인 셈이지요. 아합은 페니키아의 신, 바알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바알 뿐 아니라, 바알의 아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아세라 신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상은 바알을 따르는 페니키아의 신민(臣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실존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장소에서 보여주는 형식이고, 실존은 성전 밖에서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쟁취할 수만 있다면, 불의와 부정을 판단하는 신앙의 양심은 잠시 저 깊숙히 숨겨 두는 곳이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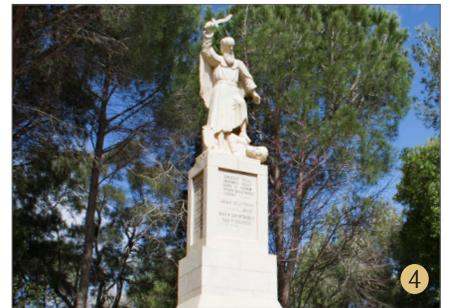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분이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바알을 함께 섬긴들 문제가 있을까? 그냥 숯가락 하나 더 얹은 것 뿐인데 말이야.”

믿음과 삶이 함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당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적으로 버렸던 이스라엘은 결국 “가뭄”이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벌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바알은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인 거지요. 그런데 가뭄이라니요? 지금 그를 위해서 사마리아에는 신전을 지어 놓고, 그를 섬기는 신관들이 끊이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3년의 가뭄 끝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신실한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그것도 천둥 번개의 신이라면, 번개를 쳐서 불을 내려보라는 것이지요. 천둥 번개와 함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못하겠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니 말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대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며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기도해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오고(왕상 18:38이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

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셔서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밀려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산 갈멜산에 올라서면,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듯합니다. 저의 신앙은 삶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삶 속에서 신앙과 부딪히는 그럴싸한 변명의 미끼가 내 앞에 던져졌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변함없는 주인이요, 왕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사진설명

- 1 갈멜산의 엘리야 수도원에서 내려다 본 이스라엘 골짜기
- 2 페니키아의 신 바알 하몬의 형상 - 페니키아의 주신은 바알 하몬이다. 페니키아의 도시 “시돈”은 고대 그리스어로 “어업”이라는 뜻이며,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의 가장 강력한 도시 중의 하나였다. 아합시대보다 대략 100년 후의 기록이기는 하나,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가 기록한 글에 따르면, 시돈은 유리공예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어업보다는 유리 제품의 수출로 부유와 명성을 쌓았다.
- 3 바람과 구름의 진행 방향 - 서쪽으로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항상 바람이 서쪽(지중해 쪽)에서 불어 온다. 서풍을 따라 몰려오는 구름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첫번째 산이 갈멜산이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합을 갈멜산으로 부른 이유는 아마도 구름이 몰려와 가장 먼저 만나는 산이기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 4 엘리야 수도원에 있는 엘리야 석상 -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밧아 올라서는 칼로 내려치는 장면이 석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갈멜산에서 해발 482미터 지점에 세워진 엘리야 수도원은 예로부터 수많은 성지순례자들이 찾아왔다. 이곳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순례자들이 찾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후 12세기의 것이다. 현재의 수도원 자리에 수도원이 세워진 것은 1858년이다.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이야기 33

사마리아
사람들



흔히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722BCE, 왕하 17:24~41)과 함께 북왕국에 살던 사람 모두가 국외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텅 빈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로 채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전히 북왕국의 사람들(므낱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Ant 9.290)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던 시대에 이르러 세겜을 중심으로 옛적부터 있었던 토착종교의 관습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서로 섞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톱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

온 유다 사람들과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적어도 이것이 요세푸스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땅 너머,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였던 프톨레미 1세가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집트로 포로 삼아 끌고 갔습니다. 기원 전 3세기 중반에 기록된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이집트 땅 안에 '사마리아'라고 이름 지어진 마을이 있었다고 하니, 이집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향력도 대단한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종교적인 갈등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원 전 3세기 프톨레미 2세의 시대에 온 세계의 사상을 하나로 모아보리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스어로 온 땅의 철학과 사상을 번역하는 일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계획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신앙의 기준인 구약의 두루마리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토라'라고 불리는 율법이 조금씩 다른 두가지 판본이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읽는 토라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읽는 토라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 전통의 차이를 놓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했습니다. 프톨레미 2세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붙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누구의 기록이 더 참된 지를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 종교의 중심지인가, 아니면 그리심산이 그리

한가를 놓고 신학적인 언쟁을 벌인 것이지요.(Ant 13.3) 유다 사람들의 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모세 오경이 승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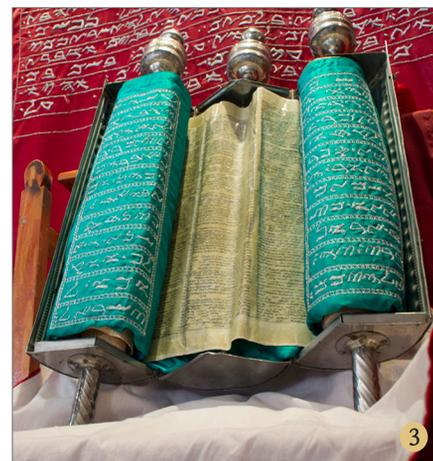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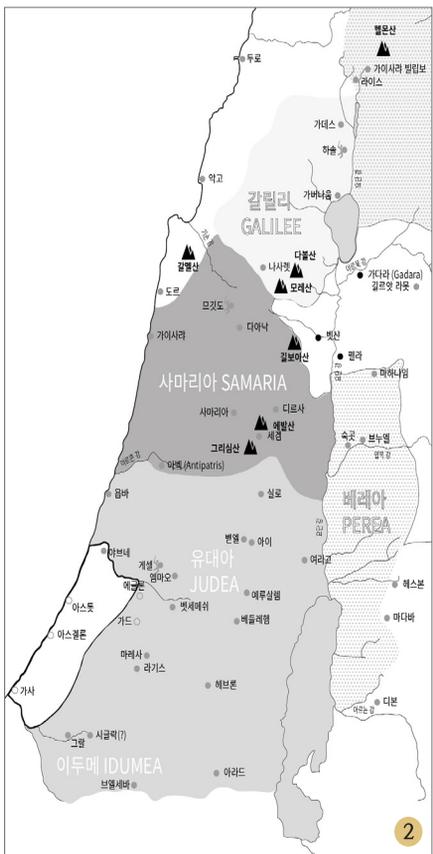
그런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유다 사람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권위가 있다"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의 토라는 참되지 않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의 학자들을 살해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 바깥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곧 팔레스타인 땅으로 전해졌고, 단지 종교적인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양금이 결국 헤롯 대왕이 죽은 뒤, 12년째 되던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야곱의 우물 참조)

은 예언자들이 있지요.) 세번째는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모세 오경이고 그 모세 오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 불립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예언서, 역사서, 성문서, 지혜문학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 성소는 그리심산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52가정(대략 800명)의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기원 후 4~5세기까지만 해도 그 수가 대략 150만 명이었지만, 많은 수가 이슬람과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사마리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이들의 대부분은 그리심산과 홀론(Holon)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홀론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도 자기 집을 두어서 스스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매년 유월절이 되면, 이 모든 가정들이 한 곳, 그들이 말하는 오직 유일한 예배 장소인 그리심산에 모여서 유월절 양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며, 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한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되새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네개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오로지 단 한 명의 예언자만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모세이다라는 것입니다.(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이외에도 수많은

사진설명

- 1 그리심산 - 돌이 있는 마을은 옛 세겜의 성터이며, 그 뒤로 나무가 등성등성 심겨져 있는 그리심산이 보인다.
- 2 사마리아 지도
- 3 사마리아 오경 -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와 예언서들은 모두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된 유다 사람들의 기록으로 편파적이라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익상 목사(델라버트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34 헤롯과 마사다



헤롯은 유대아 땅의 왕으로 기원전 37년부터 4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살아 생전 건축한 많은 요새들과 수로, 극장들과 공공 건물 등으로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지요. 헤롯의 아버지는 안티파터(Antipater)라 불리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아랍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 에돔 지역은 이스라엘의 사해 남부로부터 에일랏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티파터는 하스모니아 왕조의 통치 아래에서 귀족 세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던 가문이었습니다.

안티파터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Caesar)와 폼페이(Pompey) 사이의 갈등 속에서 카이사르의 편을 들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거든요. 카이사르가 폼페이와 전쟁을 할 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포위되어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안티파터가 직접 군대를 끌고가 카이사르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47년에 카이사르는 안티파터를 유대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안티파터는 유대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된 후, 불과 4년 뒤에 암살당하지만,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Antonius)는 안티파터의 아들들인 파사엘과 헤롯을 각각 분봉왕(Tetrarchy)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기원전 41년) 곧 유대인들이 헤롯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요. 폼페이에 의해서 무너진 유대인들의 왕조인 하스모니아 왕국의 마지막 후계자인 안티고누스(Antigonus)가 유대인들, 그리고 파르티아 사람들과 연합하여 40년에 헤롯을 받

대하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헤롯은 재빨리 로마로 갑니다.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재확인과 로마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원로원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되지요. 갈릴리 뿐 아니라, 온 유대아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을 왕으로 임명한 것은 안토니우스였지만,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로원과 한 몸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점점 악화되는 안토니우스와의 관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원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 뿐 아니라,

유대아를 포함한 지역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리는 이집트와 동유럽의 땅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를 막아 버리면 흑, 전쟁이 나게 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기에 헤롯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지요. 결국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헤롯이 갈릴리, 사마리아, 이두메아, 유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로마가 왕으로 승인하기는 했지만, 유대아 땅에서의 내부 투쟁이 곧바로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안티고누스를 따르는 유대인 세력을 진압하면서, 37년부터 실질적인 무소불위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헤롯의 근심 걱정이 모두가 사라진 것은 아니

었어요. 옥타비아누스와 손잡고 왕이 되었으나, 로마의 거대한 제국 영토 분할에 따르면, 헤롯은 안토니우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과 옥타비아누스, 그들만의 밀약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이것이 들켜 버리게 되면,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헤롯을 치러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아 땅에 진입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헤롯은 만약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군대가 공격할 경우 자기의 통치 지역 남쪽에서 이들을 막을 요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곳이 마사다입니다.

이두메 지역과 유대아 지역의 경계에 있는 마사다는 이미 40년에 벌어진 반 헤롯 전쟁 때에 헤롯이 가족들을 피신시켜 그 안정성이 검증된 장소였습니다. 사해 바다로부터 400미터의 절벽과 급한 경사길 위에 솟아있는 단독 봉우리의 마사다는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된 37년부터 마사다가 증축되고 보강됩니다. 31년에야 더 이상의 공사 없이 중단이 되었는데요. 31년에 벌어진 약탈음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하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도 죽었고, 더 이상 헤롯을 위협하는 세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진설명

- 1 마사다를 향하는 뱀길 - 400미터 높이의 마사다를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뱀길'이라 불리는 지그재그 형의 좁은 길이다. 깎아지른 절벽에 한 사람이 다닐만한 길이었던 뱀길로, 로마 군인들이 중무장을 한 채 오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 2 헤롯 대왕 시대의 통치 영역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35

마사다와 유대인항쟁



1

유다에 로마가 직접적인 통치를 시작하던 때부터 로마에 대항하는 많은 항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대인들의 반로마 항쟁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야기시켰던 66년의 항쟁이지요. 이 전쟁은 “제1차 유대-로마 전쟁” The First Jewish-Roman War 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대항쟁” The Great Revolt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항쟁의 원인은 하나님 뿐 아니라, 성전에서 황제에게도 신과 같은 급의 경의를 표해야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를 들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너무나 혹독한 로마의 세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2

마사다는 대항쟁이 시작이되던 66년에 열심당 중에서도 매우 과격한 분파였던 시카리 Sicarii 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시카리라는 말은 라틴어 시카리우스 Sicarius 의 복수형인데, 그 의미가 “단검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옷 주머니에 늘 단검을 지니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 급습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이 시카리의 지도자는 엘르아잘 벤 야이르 Eleazar ben Yair였습니다.

티투스를 이어서 로마군을 이끈 실바 Silva 가 유대인 반란군의 마지막 무리들이 모여있는 마사다로 72년에 진군을

해 옵니다. 15,000명의 로마군들이 고작 960명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만큼 마사다가 로마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그만큼의 병력이 있어야 점령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마사다가 천혜의 요새라고 하지만, 여름이 되면, 40도를 훌쩍 넘는 온도에 그늘 하나 만들어 줄 나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66CE에 시작된 유대인들의 항쟁이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일단락 지어진 후에, 70CE부터 73CE까지 약 4년여간을 이 마사다에서 살아야했을 유대인 최후의 반란군들의 팍팍한 삶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바도 바로 그 점을 간파했습니다. 마사다 요새를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그 많은 인원이 그 위에서 얼마나 버틸까 하며 마사다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고사시키는 작전을 감행한 것이지요. 아직까지도 실바의 로마 제 10군단이 만들어 놓은 마사다 주변의 로마군 진지와 마사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필품이나 군수 물자를 외부에서 옮겨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사다를 360도 둘러싼 로마군의 포위담이 고스란히 광야에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서 감탄할 만한 로마군들의 위엄 앞에서 2,000여 년 전의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만, 결과적으로 로마군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마사다에는 충분한 물자가 이미 넉넉히 준비된 데에다가 해로운 마사다에 엄청난 양의 물 저장고들을 만들어 놓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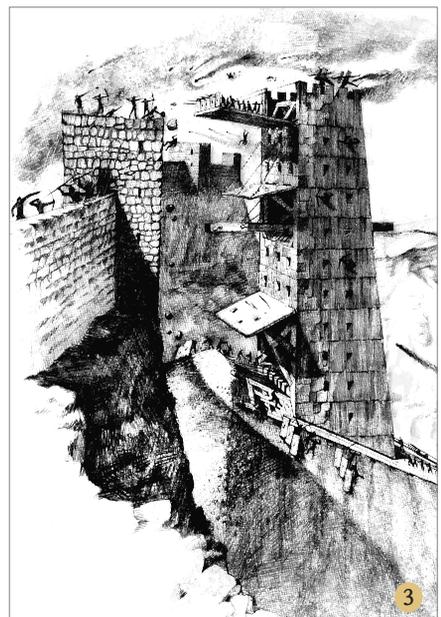
결국 실바는 직접 마사다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군사적인 용도의 비탈길을 만들

기로 결정합니다. 비탈길의 위치는 비록 깎아지르는 절벽이기는 하지만, 가장 적은 공사기간이 소요될 서쪽 절벽을 선택합니다. 실바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 3개월에 걸친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마사다 안에 있었던 시카리들은 이 공사를 그저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물론 적극적인 공격으로 공사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공사에 동원된 노예들이 모두 자신들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그 공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로마군에 대항하여 싸우던 그 긴 전쟁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시카리의 지도자였던 엘르아잘이 모든 가장들을 회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지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진리되고 정의로우신 인류의 주인이신 오직 한분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겠



3

노라고, 그리고 절대로 로마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로마군은 총공격을 해 올 겁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아내가 능욕을 당하기 전에, 우리 자식들이 노예가 되기 전에 죽음으로 자유를 선택합시다. 우리는 로마인들을 대항하여서 들고 일어난 첫번째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지금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마지막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예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용감하게 자유인으로 죽읍시다!”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자살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엘르아잘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깨뜨린 항아리의 파편에 가장들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순서대로 자기 가족들을 모두 죽인 후에 다시 회당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마사다에는 가장들만 남게 되겠지요. 마지막 가장들만 남았을 때에, 열명을 선택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고, 나머지는 서로 죽여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이 스스로 죽어야 했으니, 사실 그 한 사람이 960명의 모든 짐을 다 짊어졌다고 해야할 것 같아요.

사진설명

- 1 로마군이 건설한 비탈길 - 로마군들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3개월에 걸쳐 이 비탈길을 만들었다.
- 2 마사다 회당
- 3 마사다 점령 - 로마군은 비탈길을 만들어 이동식 공성탑을 이용하여 마사다를 점령한다.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이스라엘 최고의 여행안내자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성지순례 이야기 36

엔 프랏



성경을 읽으면서 “상징”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상징을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위험하니, 모호하게 숨겨서 돌려 표현하는 것이 상징의 역할일 거야.” 그러나 상징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표현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을 보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아마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와 자연환경이나 지리, 그리고 시대적인 정황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상징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엔 프랏’(Ein Perat)은 아나돗이라는 마을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와디 켈트(Wadi Qelt)라고 불리는 건천이 예루살렘 북쪽에서 여러고로 내려가는데, 예수님 당시 길로 사용되던 이 건천(와디 wadi)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세 개의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그 중 예루살렘 가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오아시스가 엔 프랏입니다. 건천을 따라 흐르는 물 줄기가 여러고까지 흐르는데, 이 물줄기를 프랏 강(Nahal Perat, ‘나할 프랏’)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할 프랏에 예레미야가 왔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평소에도 자주 가던 샘이었을 겁니다. 나할 프랏에 예레미야가 왔을 때, 아나돗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수영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렘 13)

폐족(廢族)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유다의 멸망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폐족이었기에 예레미야의 말이 그리 큰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문을 좇아낸 사독 계열 제사장들에 대한 반감으로 악담을 퍼붓는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으나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유다 사람

들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귀가 아닌 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로 만들어진 허리 띠를 사서 허리에 묶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라! 그리고 그 곳에서 바위 틈새에 그 베 허리띠를 감추라!”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프랏’입니다. 철자법도 똑같아요. 어떤 성서연구가는 정말로 예레미야가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다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예레미야가 한 달 길을 걸어야 할 유프라테스 강을 갔다가 돌아와서 또 며칠 만에 다시 그 강으로 갔다왔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

니다. 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는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적대국의 땅이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정말 그곳 유프라테스 강으로 간다면, 눈에 뻘히 보이는 역적 행위로 보여졌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서연구가들은 예레미야가 간 곳이 나할 프랏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히브리어로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곳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아나돗 옆에 터져나오는 엔 프랏에서 시작하는 그 물줄기로 예레미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베 허리 띠를 그 물기 축축한 바위 틈에 숨기게 하셨습니다. 뻘히 썩을 것을 아시면서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예언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제국을 이룬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강을 건너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을 통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엔 프랏에서 수영을 하고, 물가에서 쉬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다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상상해 본적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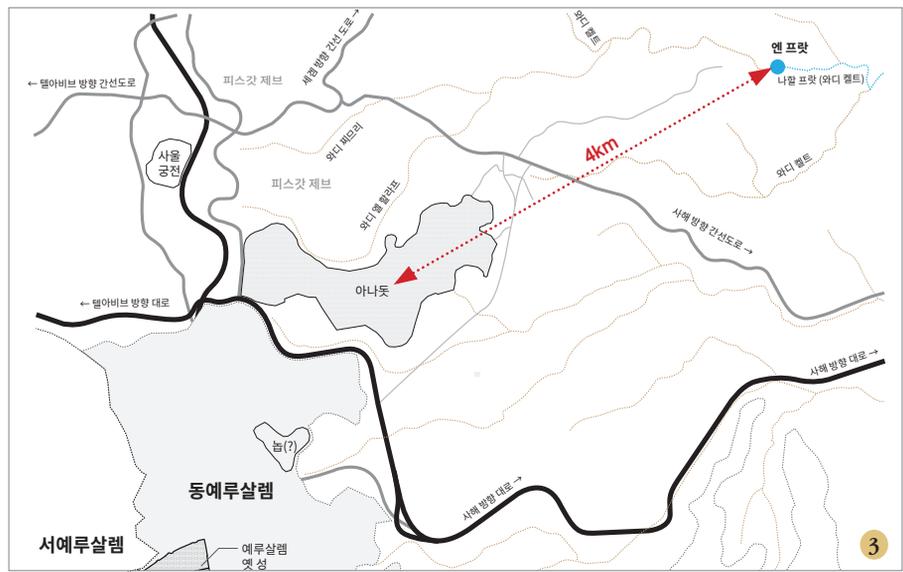
오히려 몇 년 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와인 왕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소식을 얼마전에 들었는데, 물정도 모르고 기이

한 행동을 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근거렸을 수도 있었겠지요.

예전에 문학적인 감수성이 풍부하신 저의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딱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흔들어 깨워 함께 가던, 밥을 먹던 할 수 있습니다만, 자는 척 하는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날 리 만무한 것과 같이, 예레미야의 말에 자는 척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미래의 운명에 일부러 눈 감았습니다.

이유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냥 듣기에 거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은 오로지 정치적인 판단에 달려있는데, 그 정치적인 판단은 오히려 예레미야보다는 왕궁 사람들의 것이 더 옳다는 불신앙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에게 보여준 그 썩은 베 허리띠처럼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랑하던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었던 상징 행동이 모호해서가 아니라,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귀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설명

- 1 아나돗 -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한 아나돗은 현재 팔레스타인 정부가 관리하는 마을이다. 팔레스타인 정부가 관리하는 마을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사진과 같이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
- 2 엔 프랏의 샘의 근원 - 엔 프랏의 물의 근원은 넓은 바위의 틈새이다. 이 틈새 아래에 물이 솟아나고 여기에서부터 365일 여러고를 향해 물이 흘러 내려간다.
- 3 엔 프랏 지도 - 사울시대 제사장들은 넓은 땅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아비달은 폐허가 된 넓은 땅을 떠나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러나 다윗 이후 왕위 계승을 놓고 솔로몬을 후원한 사독계열에 밀려 아비아달 후손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아나돗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곳이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다.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